

문학석사 학위논문

# 1930년대 도시소설을 통한 문화연구

-다방과 카페를 중심으로-

A Study on Modern culture through 1930s Urban Novels

-Focusing on the 'Tea-room and cafe' -



지도교수 김정하

2011년 2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과

하 은 지

본 논문을 하은지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위원장	하 세 봉	인
위 원	류 교 열	인
위 원	김 정 하	인



2010년 12월 24일

한 국 해 양 대 학 교 대 학 원

# 목 차

영문초록 .....	ii
I.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 .....	1
2. 선행연구검토 .....	4
II. 다방과 카페의 표면적 공간성.....	8
1. 여가 공간 .....	10
2. 소비 공간 .....	17
III. 다방과 카페의 내면적 공간성 .....	19
1. 강박적 여가 .....	19
2. 피상적 인간관계 .....	24
3. 무주체적 소비 .....	26
IV. 1930년대의 한계와 문화인식의 형성 .....	33
V. 결론 .....	36
참고문헌 .....	38

# A Study on Modern culture through 1930s Urban Novels

-Focusing on the 'Tea-room and cafe' -

HA EUN JI

*Department of East-Asia*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 Abstract

In pursuit of finding the origin of today's culture, we aim to research into the era of 1930's in Kyung-Sung, the place that is accumulated with various modern changes. In particular, to deduce the modern cultural changes that are reflected visually, we analyse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Special focus was placed on 'Tea-room and Cafe', a renowned 'star of the urbiculture', being widely known foreign culture of the time. Through this work, cultural aspects and the spatial reflection projected by the work was also sought.

This treatise is intended to analyze the urban novel which is one literary style of 1930s, This treatise is intended to analyze the urban novel which is one literary style of 1930s. Primary examples are; Park Tae Won, Lee Sang, Lee Tae Jun, Lee Hyo Seok's works.

In a broad sense, 'Tea-room and cafe' constitutes as a place of leisure, social gathering and consumption. However, the places provide very different inner spatial atmosphere.

As a place of leisure, both the tea-room and cafe became a place where melancholy and tiredness accumulated due to the process of disciplining becoming common for people. Furthermore, the place was found to exhibit the split sign of the community by weakened inter-relationships, thereby not being able to fulfill the function as a place of socialization. The spending culture reflects the bourgeois attitudes that was founded by foreign cultural concepts and realization that led to formulate an unconscious spending trend that lacks subjectivity.

Negativity of the modern era, founded by a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is observed to burden the lives of people. Furthermore, the spread of bourgeois thoughts based on capitalism raised incongruity amongst social classes or forced the unconscious non-subjective spending culture to occur that is fueled by organized, enforced desires. This is furthermore complexed by the unique circumstance of ‘Chosun’ as a nation, as it was faced with colonization by Japan that widely-promoted unemployment and alienation.

Thusfar, the two places provide a stage for all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era and modern cultural aspects to dynamically mix and contributing towards culminating a unique culture of 1930s.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연구대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다방이나 카페에 간다. 커피와 여유를 한 쌍으로 여기며, ‘유쾌을 즐긴다’는 카페의 광고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은 다방이나 카페에 가는 것이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행동들이 자연스러워지기까지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다방이나 카페’라는 공간에 대한 고유한 인식이 형성되었을 것이라 가정한다. 결국 1930년대 다방과 카페공간에 대한 연구는 “문화가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자문에서 시작된 것이다.

여기서 ‘문화’는 ‘인간생활의 모든 양식’이라는 광범위한 개념보다는 좁은, 상호 소통되고 이해되는 범위에서 인간이 창조해 낸 언어적·비언어적 표상들을 의미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상징적인 여러 형태의 영역’ 즉, “시나 그림, 소설 등이나 종교적인 형태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고, 상상력 풍부한 어떤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다니엘 벨의 개념을 따른다. 이렇게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가시적 형태로 표현되는 ‘문화’는 인간을 탐구하기에 좋은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문화에 대한 인식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시기와 공간설정이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당시의 문화상이 어땠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문화상은 어떤 인식이 형성된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당시의 문화상을 오늘날의 경우와 비교해보도록 한다. 표면적인 유사성을 통해 연속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양상과 그 인과관계를 살피는 것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오늘날 문화에 대한 인식의 기원이 되는 시기와 공간으로는 ‘1930년대 경성’을 설정한다. 이는 그 시기와 공간이 보여주는 특별한 점들 때문이다. 먼저 ‘경성’은 한국에서 형성된 최초의 근대적 도시라 부를 수 있는 곳이다. 19세기 말엽부터 조선에도 자본주의가 들어와 근대적 공간을 생산하고 확장시켰는데, 그 시발점이 된 곳이 바로 조선의 수도인 ‘경성’이었던 것이다. 경성은 근대의 발원지였으며 근대가 무르익게 된 이후에는 가장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생활공간이 되었다.

시기로서 1930년대는 이전 시기와의 비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 1910년대는 문화보다는 서구의 ‘문명’이 유입된 시기로 문명에 대한 찬탄과 비난이 양극단으로 대립하던 시기였다. 또한 1920년대는 근대 문화가 도시에 확산되고 있었지만, 사상이나 이념이 논의의 주류를 이루던 과도기적인 시기였다. 그에 비해 1930년대는 백화점이나 다방·카페, 극장 등의 근대적 문화시설들은 도시경관을 결정짓게 될 정도였으며, 근대

문화가 도시민의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 든 시기였다. 다시 말해 1900년대부터의 다양한 변화들이 누적된 시기였던 것이다.

또한 1930년대의 경성에는 극장에서 미국 영화를 본 뒤, 서양 배우를 선망하여 헤어스타일부터 복식은 물론 언어습관까지 서구식으로 바꾸는 ‘모던 걸과 모던 보이’ 들이 거리에 가득했다. 카페에 앉아 모닝커피를 즐기며, 가로등이 수놓은 밤거리를 걸으며 동경의 ‘긴자(銀座;ぎんざ)’ 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현대의 풍속과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 할 정도이다. 이러한 점들은 1930년대를 식민지적 저항의 시기로 일축해버리기 어려운 여러 모습의 근대적 일상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1930년대 경성’ 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당시의 문화상을 파악해보아야 한다. 본고는 이를 위해 소설작품을 주요 텍스트로 삼는다. 근대 소설은 “형성의 주체가 시민 계급인 만큼, 객관적인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관심을 우선으로 하며, 봉건적인 도덕보다는 사실적인 경험의 가치에 입각” 하는 것이 일반론이다. 한국의 근대 소설 또한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인물이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드러내거나 고독한 자아의 내면을 표출하는 일상적인 현실 세계에서 이야기” 를 소설에 담아내고 있다.<sup>1)</sup> 본고는 현실을 드러내며 현실에 대한 자아의 내면을 표출하는 소설이 근대의 문화상과 이에 대한 당대인의 의식을 살펴보기에 가장 적절한 텍스트라고 본다.

특히 1930년대에는 경향 소설 내지 계급 문학과 같은 사상과 이념의 영역으로부터 일상의 영역으로 관심이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이재선은 이를 ‘관심의 다원화 현상’<sup>2)</sup> 이라 일컫는다. 관심의 영역이 수평적으로는 삶의 터전인 도시나 농촌 등으로 확대되자 ‘근대인의 일상’ 이 조명되기에 이른다.<sup>5</sup> ‘도시소설’ 이라 부르는 장르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던 시기도 바로 이 시기이다. 본고는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한 도시소설을 통해 당시의 문화상과 그에 대한 근대인의 인식을 살펴보려 한다.

게다가 소설은 현실을 비판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당시 문화가 가지고 있던 실제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도시소설은 공통적으로 “카메라의 눈과 같은 확산된 시점에 의한 관찰, 풍자 또는 역설 등에 의한 비판적인 수단들이 존중” 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도시적 삶의 양식이나 도시적 세태를 드러내며, 거기서 포착되는 부정적 측면들을 통해 문명의 속악성이나 도시의 병리적 요소를 지적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소설은 본고의 목적에 적합한 텍스트가 된다.

작품 속에서 당시의 문화는 다양한 상징들로 표현된다. 그것은 모던보이나 모던 걸, 여학생 등과 같은 근대에 새롭게 등장한 인간형부터 백화점, 극장, 카페 등의 건물, 전화, 전차 등의 근대문물에서 패션, 법의식, 질병, 연애, 가족, 사랑까지 다양하다.

1) 이재선, 《한국소설사》, 2000, 민음사, p.20 참조.

2) 이재선, 앞의 책, p.351.

작품들은 이러한 상징들을 통해 현실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드러내려 했다.

다양한 상징들 중에서도 ‘공간’은 당대 문화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고 본다. 이는 “근대문화는 단연 시각에 의해 발견되고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sup>3)</sup>이다. 실제 공간도 그러하거나와 작품에 반영된 서사적 공간은 절대적 실체가 아니며, 차원의 관계로써 구성되는가 하면 지각 혹은 인식의 양상에 따라 달리 구성되는 ‘구성체’<sup>4)</sup>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서 드러나는 ‘공간’을 분석하면 당시 문화상은 물론 작품이 공간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바를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작품의 서사에 투영된 공간 형상의 양상과 함께 그 형상화에 작용하는 제반 역학을 논급해야 할 것이다.

대상작가로는 당시 왕성하게 활동한 작가들 중 박태원, 이상, 이태준, 이효석으로 한정한다. 네 작가를 선정한 것은 이들 모두 도시를 소설의 배경으로 등장시켰으며, 도시경험을 중요한 텍스트의 근거로 삼았다는 공통분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 도시라는 공간이 지니고 있는 병리적인 면에 관심을 가졌으며, 삶의 양식 또는 도시적 세태를 제시하고 관찰하고자 하였다. 대상작품은 박태원의 <피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상의 <날개>, 이태준의 <장마>, 이효석의 <공상구락부>, <일요일>이다. 모두 도시의 공간성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한 두 작가의 작품을 다루지 않은 것은 다양한 경우를 통해 당시 문화상과 인식의 양상의 공통분모를 찾아보기 위해서이다. 이들 뿐만 아니라 안희남, 김남천, 한설야 등의 작품을 비롯하여 대상 작가들의 다른 작품도 논의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한다. 또한 공간의 형상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고려되는 사회문화사적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잡지인 『별건곤』, 『삼천리』, 『조광』 등을 비롯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신문의 기사를 참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렇게 파악된 당시의 문화상을 통해 오늘날의 문화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

3) 김정하, 「근대문화공간의 문학적 형상화- 이광수 소설에서의 온천 이미지를 중심으로」, 배달말 학회, 2008, p.75.

4) 장일구, 「소설 공간론, 그 전제와 지평」, 《공간의 시학》, 한국소설학회, 2001, p.14.

## 2. 선행연구검토

본고는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한 도시소설을 통해 당시의 문화상과 그에 대한 근대인의 인식을 살펴보려 한다. 그 중에서도 ‘공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근대문화의 제 현상을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논의를 ‘다방과 카페’에 한정하도록 한다. 이는 광범위한 공간을 분석하는 것 보다는, 근대문화를 집약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특정 공간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실제로도 1930년대 들어 다방과 카페는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도시의 풍경을 결정지을 정도였으며, 화려한 외관과 독특한 실내모습으로 이목을 끌며 ‘도시문화의 총아’라 불렸다. 이렇게 다방과 카페는 외래문화이자, 당시 유행하는 대중문화로서 근대 문화의 한 양상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를 중요한 서사적 배경으로 삼았던 도시소설에서 다방과 카페는 1920년대부터 도시공간에서 가장 첨단적인 곳<sup>5)</sup>으로 빈번하게 등장했다. 또한 작품에서 다방과 카페는 사적(私的)이면서도 공적(公的)이며 ‘장시간의 머뭇’이 가능한 공간성으로 말미암아 인물들 간의 관찰, 주인공의 사색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등장한다. 최근 근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의 풍속으로, 주체의 내면이 드러나는 특별한 공간으로 다방과 카페연구들도 나오고 있다.

다방과 카페에 대한 연구는 문화론적 연구가 대부분이다. 특히 풍속지적·문화사적 성격의 연구이다. 이는 식민지 조선의 도시공간에서도 근대적 주체와 문화적 장의 형성이라는 ‘보편적인 의미의 문화적 근대성’이 존재했음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예를 들어 ‘백화점’<sup>6)</sup>은 도시의 자본주의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건물로 소비를 통해 주체가 확립된다고 여기는 근대인의 내면을 드러낸다고 보며 이재봉은 ‘하숙방이라는 근대적 사적공간이 당시 유학생들의 내면과 문학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공간<sup>7)</sup>이라고 본다. 다방과 카페에 대한 풍속지적·문화사적 연구는 손유경과 노지승, 김병덕의 연구가 있다.

손유경은<sup>8)</sup>은 ‘다방’이 ‘문인’들의 집필실로서 역할을 했다는 문화적 사실을 통해 다방이 문사의식을 형성하는 공간이었다고 본다. 또한 노지승은<sup>9)</sup> ‘다방’이 ‘문

5) 김진송, 《현대성의 형성: 서울에 판스홀을 許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p.259.

6) 이경훈, 「『미쓰코시』, 근대의 쇼윈도우-문학과 풍속 1」, 『현대문학의 연구』 제 15집, 2000.

7) 이재봉, 「근대 사적 공간과 문학의 내면 공간」, 『한국문학논총』 제50집, 2008.

8) 손유경은 1930년대 다방이 문인들에게 문사의식을 심어주게 된 과정과 그 의미, 그리고 문단 형성의 역할을 하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살핀다. 당시 다방의 주요고객 중 한 부류인 예술가들에 주목하는데 그들을 문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다방 애용자는 주로 해외문학과들과 구인회 멤버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다방은 도회적 감수성을 체험하는 장소이자 동업자들끼리 문학을 소통하는 통로였다. 아울러 그들은 다방 출입을 통해 자신들이 고상한 ‘문사, 문인, 예술가’라는 자의식을 형성하였으며 그곳에서 집필을 하기도 했다(손유경, 「1930년대 茶房과 ‘文士’의 자의식」, 『한국현대문학연구 12』, 2005)

인들의 회합처' 로 이용되어 여기에서 작가적 주체는 물론 문단이라는 동아리도 형성 될 수 있었다고 본다.

김병덕은<sup>10)</sup> 당대의 풍속이나 문화사를 재구성함을 통해 소설 속 다방이 물리적 공간 으로서의 위상뿐 아니라 일상인의 생활공간이자 내면이 투영된 심리지리적 성격을 띤 다고 본다. 그는 다방을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누는 현민<sup>11)</sup>의 언술을 따르며 여러 작품을 통해 1920년대부터 피난기까지의 다방을 '예술인의 안식처이자 창작의 공방' 이었다고 본다. 특히 실제로도 다방과의 친연성을 가진 박태원<sup>12)</sup>의 작품은 고현학적 방법론이 집박의 집필실인 다방에서 실행되었다고 여긴다.

이들 연구는 모두 집필실이자 회합처로서 다방과 카페라는 문화적 장의 형성과 작가 의 문학적 자의식의 형성이라는 근대 도시적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모두 조선의 '다방' 의 문화적 특성을 밝혀내는데 유럽의 카페공간에 대한 사회사적 자료를 대입하는 것으로 보아, 이곳을 보편적인 의미의 근대 문화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작품 속 다방과 카페의 공간 분석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식민지적 특수성' 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접근이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정현숙, 차선일, 조영복, 안미영, 나은진, 박숙영 등이 있다.

정현숙은<sup>13)</sup>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수평적 공간이동에 의한 도시 관찰이 식민자

---

9) 노지승은 당시 다방이 문인들의 회합처였던 집에 주목하여 그곳의 장소성과 공간의 의미<sup>1)</sup>를 밝힌다. 그는 근대로 인해 문학이라는 분화된 장을 마련되어 개인이 작가로서의 자기인식, 작가로서의 주체가 성립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에 대해 인식하게 된 근대적 시간성으로 인해 작가적 자기 인식을 지닌 '나'가 관찰과 기록(紀錄)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그는 다방, 문단, 그리고 저널리즘이 문인 동아리를 조직케 하여 작가 주체를 성립하는 외적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그 중 다방은 장르적으로는 예술가소설 또는 소설가소설의 공간적 기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문단이라는 문학적 공공영역이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공간이었다고 본다(노지승, 「1930년대 작가적 자기인식과 그 문학적 생산력에 관한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7집』, 1999)

10) 김병덕, 「현대소설에 나타난 다방의 심리지리」, 『비평문학』, 2009.

11) 1930년대 경성의 다방을 두 개의 유형, 즉 상인, 관리, 회사원 등이 드나들며 '차를 마시는 곳'과 예술가, 가두철인(假頭哲人), 미남자, 실업자, 전문대학생이 오가며 '차를 마시는 기분을 즐기는 곳'으로 나눈 점이다. 김병덕은 전자는 대중적·개방적·세속적이며 분위기가 명랑하고 좋은 레코드가 없는 대신 찻값이 싸고 사내들이 급사를 하는 곳이며 후자는 귀족적·폐쇄적·고답적이며 담배연기로 자욱하고 베토벤·모차르트 등 고전음악을 들려주는 대신 찻값이 비싸고 어여쁜 모던걸이 급사하는 곳으로 특징을 나눈다. (현민, 「현대적 다방이란?」, 『조광』, 1938.6, pp.157~158)

12) 박태원은 "문단인 중에 제일 감각적인 분의 한 사람으로 또한 다방취미를 인텔리들에게 먼저 전염시킨 분"(안석영, 「韓國文壇三十年側面史」, 『조광』, 1939.6, p.198)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실제 그에게 다방은 창작 동력의 공간 그 자체였다(김병덕, 「현대소설에 나타난 다방의 심리지리」, 비평문학, 2009, p.33)

13) 정현숙, 「1930년대 도시 공간과 박태원 소설」, 현대소설연구 31, 2005.

본주의에 의해 파괴되고 생성되는 식민수도의 경제와 정치, 사회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 여긴다. 그 중에서도 ‘다방(카페)’는 교환 가치적 욕망이 증폭되는 공간이며, 동시에 욕망의 실체를 확인하고 이를 부정하는 공간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박태원이 도시 공간과 욕망의 상호관련성을 정확히 의식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차선일<sup>14)</sup> 박태원의 문학적 행보를 ‘모더니스트에서 리얼리즘 작가로 변모’한 것으로 여기고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통해 변모의 과정을 연속적인 관점에서 해명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 중 ‘구보’의 산책은 ‘거리’와 ‘다방’의 왕복운동이며 이는 세속적 욕망과 예술가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혼란을 겪는 것으로 본다. 그는 거리에 놓여있는 ‘다방’이라는 공간을 예술가들의 사회라는 일종의 특권적인 예술가 집단으로서 사회적 인정을 확보해주는 기반이 되는 장소이며, 1930년대 식민지 도시 경성은 식민지적 근대의 파행성으로 인해 장들 간의 불균형적인 발전을 드러내는 곳으로 분석한다. 다방이 이러한 공간성을 드러나게 된 원인으로 당시 중요해진 ‘생활의 문제’를 제시한다.

그밖에도 조영복은 다방을 모더니즘적 특성과 관련된 공간<sup>15)</sup>으로 파악하며, 안미영, 나온진, 박숙영 등은 카페의 여급에 대한 페미니즘적 담론<sup>16)</sup>을 언급할 때 부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최근 근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방과 카페에 대한 짧은 논문 몇 편 밖에 찾지 못했다. 연구 결과도 다방과 카페를 통해 보편적인 의미의 ‘문화적 근대성’만을 찾으려 하거나, 다방과 카페의 공간성 내지 문화현상을 ‘식민지적 특수성’으로 귀결 짓는 경우로 관점이 양분되는 경향을 갖는다.

전자는 작품 속에 제시된 다방과 카페의 풍경이나 인물의 행동 등을 풍속의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현실을 비판적으로 반영하는 문학적 현실을 바로 실제 사실로 대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상도 ‘문인(지적 인텔리)’에만 한정된 경우나 많았다.

후자는 카페를 성적 타락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분석한 논문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근대문화의 제 현상을 ‘일제(日帝)혹은 일본’, ‘총독부’의 권력에 의한 것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는 근대문화가 지닌 다양한 양상과 문제를 보기 어렵게 만든다.

14) 차선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구」, 구보학보, 2007.

15) 조영복,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근대성과 일상성》, 다운샘, 1997.

16) 안미영,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여급(女給) 고찰 - 이상의 여성관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호, 2000.

나은진, 「이상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양과 껍질 벗기기」, 여성문학연구 제6호, 2001.

박숙영, 「근대문학과 카페」, 한국민족문화 25, 2005.

그러므로 본고는 작품에 형상화 된 ‘공간’에 주목하여 1930년대 문화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서사에 투영된 공간 형상의 양상과 함께 그 형상화에 작용하는 제반의 사회·문화상을 함께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별건곤』, 『삼천리』, 『조광』 등을 비롯한 잡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을 참고하도록 한다.

이는 그 중에서도 작품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며 서사전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방과 카페<sup>17)</sup>의 공간성을 면밀하게 고찰하도록 한다.



---

17) 기존 연구에서는 다방과 카페를 분리하기도 하고 함께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다방과 카페를 혼용하도록 하겠다. 또한 다방과 카페는 작품마다 각이하게 표기된다. 작품을 분석함에 있어 본고는 ‘티이 루움’, ‘찻집’ 등의 표기법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나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는 다방과 카페로 표기하도록 한다.

## II. 다방과 카페의 표면적 공간성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피로>, 이태준의 <장마>, 이효석의 <일요일>, <공상구락부>, 이상의 <날개>는 모두 어떤 특정한 사건이 아닌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서술하고 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선택한 방법 즉, ‘거리에서의 배회’나 ‘다방이나 카페가기’는 전통적인 이야기 구조가 아닌, 즉 내면에 떠오르는 상념을 뚜렷한 서사적 인과관계 없이 나열한 서술구조가 발생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 때문에 대상이 되는 작품들은 의식적 결합체인 줄거리는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경향을 갖는다.

그러나 거리를 배회하거나 다방이나 카페에 머무는 인물은 어떤 대상(다른 인물이거나 물체일수도 있는)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이나 의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의식들은 작품 속 공간을 통해 구현된다. 그리고 이 공간성을 근대 문화적 양상으로 확대해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다방이나 카페는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에서 경희와 명호, 현순이 만났던 ‘명과’, 이태준의 <장마>에서 ‘내’가 으레 들르는 ‘낙랑’<sup>18)</sup>, 이상의 <봉별기> 등의 작품의 배경이 된 ‘제비’와 같이<sup>19)</sup>, 실제 존재했던 다방이나 카페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는 작품 속 다방과 카페 공간을 작품의 주요 공간이자 당대 문화적 공간으로서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茶집과 音樂軒

오늘 도시에 사는 有閑者 인테리群으로써 이 茶집의 존재란 자기의 사랑방보담 더-정다운 휴게소가 되어있다.

더욱히 레코-트웬에 있어서는 일금 20錢也를 던져주면 南國의 薰氣가 떠도는 안옥한 방에 촉감 좋은 컵손에 엉덩이를 나리고 앉으시면 어엽분 색씨가 부라질 커피를 얹전히 담아 오게된다.<sup>20)</sup>

18) 당시 ‘낙랑팔러’ (‘낙랑’ 혹은 ‘낙랑파라’ 라고도 이름)는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는 다방으로 기록되고 있다(김수기, 「다방에 드리워진 현대의 음영」, 『월간 말』, 2000.4, p.202). 낙랑팔러가 흑자를 내며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는 입지가 좋아 일본인 다객(茶客)을 많이 끌 수 있었고, 종로 근방 다방의 가장 큰 폐단인 기생이나 주정꾼 출입이 전혀 없어 다방 취미에 적당한 기분과 분위기를 만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이봉구, 「한국 최초의 다방 - 카카듀에서 에리자까지」, 세대, 1964.4, p.341)

19) ‘이상’ 이 1933년 폐병으로 총독부 기수직을 그만두고 배천온천으로 요양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만난 금홍과 그 해 7월에 서울로 돌아와 차린 다방이다. 다방은 이상이 설계하였으며 당시로서는 초현대적 건물이었다고 무엇보다 대형 유리창을 통해 카운터 아가씨의 각선미를 투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커피를 마시면 다리가 날씬해진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한 원천이 되기도 하였다(이규태, 「커피와 한국 근대사 속의 인물들」, coffee&coffee, 동서식품주식회사, 2002, p.15)

20) 구왕삼, 「樂壇雜觀」, 『삼천리』 제11권 제7호, 1939.6.1.

그런데 위 글과 각주의 표를 통해 미루어 볼 때 다방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었던 이들은 일부 계층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이태준의 <봄>에서 주인공은 휴일조차 가질 수 없는 하층민이며, ‘세궁민·토막민’은 당장 하루를 연명하기 어려운 처지였다.<sup>21)</sup> 그렇기 때문에 다방과 카페를 논의할 때는 대상 계층이 한정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먼저 근대문화를 접한 경험자들이었으며, 근대에 대한 입장을 표출 할 수 있는 부류였다. 작품 속 주인공들도 마찬가지이다.

궁극적으로는 1930년대의 문화상을 밝히기 위해 먼저 다방과 카페의 공간성과, 공간형상화에 영향을 주었을 당시의 사회·문화사를 통해 표면적인 공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1930년대 당시의 일반적인 문화상, 풍속에 가까운 사실들을 유추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문화 공간이자, 소설 속 서사 공간으로서의 다방과 카페는 표면적으로 여가, 사교, 소비의 공간성이 두드러진다.



21) 당시 다방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10~20전 정도였는데, 1935년 당시 조선인 목도꾼의 평균 일급(日給)이 ‘70전’이 조금 넘는 정도였다. 이는 당시 다방에 드나드는 부류가 한정적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아래표, 작자미상, 「九. 物價·賃金」,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 1935, 1936, 1937).

분류	직종	韓國人		日本人
		1935	1.78圓	3.06圓
平均日給	대편수(木工)	1936	1圓97錢	3圓13錢
		1937	2圓11錢	3圓24錢
		1935	1.48圓	2.44圓
	洋服裁縫職	1936	1圓43錢	2圓42錢
		1937		
		1935	75錢	1.29圓
	平人足(목도꾼)	1936		
		1937	94錢	3圓38錢
		1936	1圓23錢	1圓93錢
	理髮職	1937	2圓34錢	3圓70錢
1937		2圓21錢	3圓38錢	
1935		7.48圓	14.49圓	
謝禮月給	下女	1936	7圓66錢	15圓
		1937	7圓92錢	15圓16錢

## 1. 여가 공간

본고에서는 ‘여가’를 ‘일상’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즉 ‘일상’이라는 어휘는 르페브르식의 “의무의 시간(직업적인 일을 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여가’는 탈일상, 즉 ‘자유시간’을 뜻한다.

노동과 분리되는 ‘여가’의 개념은 근대에 와서 형성되었다. 근대의 공업화로 인해 정해진 시간의 일 혹은 정해진 분량의 일을 처리해야 했는데 그로부터 ‘노동 이외의 시간’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대 제도나 환경에 적응하는데서 발생하는 부담과 피로, 갈등과 고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여가는 삶의 불가결한 일부를 이루<sup>22)</sup>게 되었다.

근대시기 조선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농업 부분의 생산력 증대와 더불어 수공업과 광업 등의 발전은 상품 화폐경제의 발달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신흥 중간 계층이 대두”되었다. 이들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삶에 있어서 휴식과 유흥을 위한 문화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가문화는 형성되고 확산되었다.

다방과 카페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방과 카페는 공업화로 인해 형성된 여가 공간이었다. 1926년 이후 일본은 금융공황, 세계공황으로 이어지는 ‘쇼와(昭和)공황’으로 엄청난 대불황에 빠져있었는데 조선도 마찬가지로 불경기로 침체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1932년 만주국을 건국하고 일본·만주·중국의 블록화가 추진되자 일본 기업이 조선을 보급기지로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한다. 1933년에 들어서는 공업생산 능력이 점차 향상되어 1933년 이후에는 그곳에 근무하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졌다고<sup>23)</sup> 한다. 결국 공업화와 경제력 상승이 맞물리며 여가가 삶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대상 작품들에서 다방과 카페는 여가의 공간으로 등장한다. 여가공간으로서 다방과 카페는 사적으로는 ‘휴식’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공적으로는 ‘사교’가 이루어진다.

이상의 <날개>에서 ‘티이 루움’은 작품의 주인공인 ‘내’가 세 번째 외출 시 거리에서 발견한 공간이다. ‘나’는 외출을 할수록 아내와의 관계나 돈을 쓰는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자 외출을 하고 싶어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외출이 아내 몰래 이루어진 것임에 비해 세 번째는 지폐를 건네며 “어제보다도 늦게 돌아와도 좋다”는 아내의 허락을 받아 외출을 하게 된다.

22) 양리르페브르 저, 박정자 옮김, 《현대세계의 일상성》, 주류, 1995, p.91.

2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난짜 먹으러 갑시다- 백화점과 양식의 만남」, 《모던라이프 언 파레드: 2,30년대 일상문화》, 민속원, 2008, p.121.

세 번째 외출: 어쨌든 나섰다. 나는 좀 夜盲症이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밝은 거리로 돌아다니기로 했다. 그리고는 경성역 일 이등 대합실 한결 티이 루움에 들렀다. 그것은 내게는 큰 발견이었다. 거기는 우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안온다. 설사 왔다가도 곧들 가니까 좋다. 나는 날마다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리라 속으로 생각하여 두었다.(이상: 255~256)

네 번째 외출: 여러번 자동차에 치일 뻔하면서 나는 그래도 경성역으로 찾아갔다. 빈자리와 마주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생략) (이상: 262)

“어쨌든”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나’의 외출이 목적인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중 ‘나’는 “경성역 일 이등 대합실 한결 티이 루움”에 간다.

‘나’에게 ‘티이 루움’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안 온다”는 익명성으로 인해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곳이다. ‘나’는 첫 번째 외출에서 “이 거리 저 거리로 지향 없이 헤매”다 곧 피로해짐을 느꼈으며, 두 번째 외출에서는 “좀처럼 피곤하지는 않았”으나 “시간이 좀 너무 더디게 가는 것만 같아서 안타까”워 한다. 그러나 세 번째 외출에서 ‘나’는 ‘티이 루움’을 발견하고 “날마다 여기와서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티이 루움’ 즉, ‘다방’은 거리에서 피곤을 느끼고 목적 없이 방황하며 ‘무료함’을 느끼던 ‘내’가 쉴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리의 정착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본래 ‘다방’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다. 《카페의 역사》에는 “진창길과 추위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생각으로 카페에 들어갔다”는 장 지오노의 글이 인용되어 있다. 카페 문화의 발원지인 유럽에서 카페는 일종의 ‘구원의 피난처’였다. 또한 어네스트 헤밍웨이는 “내가 좋아했으나 이름조차 알지 못한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카페를 찾았다. 아무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사색을 즐기기에 적합했으리라.”라고 말한다. 즉, ‘다방이나 카페’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 속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요컨대 다방과 카페는 ‘피난처’이자 ‘자유로움’을 느끼는 공간이었으며 당시 여가공간으로서 다방과 카페가 선호된 것도 ‘휴식과 피난’의 공간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나’에게 아달린(수면제)을 먹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다시 거리에 나섰을 때도 ‘나’는 “쓰디쓴 입맛을 거” 뒤 줄 수 있는 장소로 ‘티이 루움’을 떠올린다. 이는 ‘다방 가기’가 단순히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닌 정신적 충격을 달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의 ‘다방’ 또한 ‘구보’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구보’는 어머니로부터 ‘일상적 행복’ 즉, 직업을 가져 가부장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아내를 가져 가정을 꾸리는 형태의 삶을 꿈

임없이 강요받는 집에서 벗어나 거리로 나간다. 거리에서 ‘구보’는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 식당에서 오찬을 즐기러 가는 젊은 내외를 보며 그들이 ‘행복’ 할 것으로 여긴다. 그것은 어머니의 가치에 의해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구보는 “손바닥 위의 다섯 닢 동전”에서 의미를 찾으려 생각해보기도 하고 ‘시계와 치마’를 해 입을 수 있을 때에 행복의 절정에 이를 것으로 생각되는 소녀를 떠올리며 자신 또한 그러한지 생각해본다. 전차에서는 “전에 한 번 만난적이 있었던 여인”이 자신에게 행복을 주지 않을까를 생각하여 본다. 그러나 ‘구보’는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행복일 수는 없다고 여기며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생각에 피로를 느낀 그는 이제 마땅히 다방에 들러 한 잔의 홍차를 즐겨야 할 것이다.(박태원, 285)

‘행복’을 찾는 것은 ‘원하는 삶’을 탐색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구보’는 일상적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삶’이 아닌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거리에서 본 행복의 모습들은 이상과의 괴리감만 벌여놓아 ‘구보’를 피곤하게 한다. 그런 ‘구보’가 ‘마땅히’ 찾으려 한 곳은 한 잔의 홍차를 즐길 수 있는 ‘다방’이었다.

“마땅히”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구보’에게 다방에 가서 홍차를 마시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보’가 하루에도 네 번이나 다방에 들르는 것을 볼 때 구보에게 다방은 ‘일상적인 여가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공상구락부>의 네 친구들 또한 “한 잔의 차와 음악을 구해서는 차례차례로 거리의 찻집을 순례”한다.

공통된 분위기 속에 반영된 世相이란 또 그들의 이 순간적 향락 심리란 계절을 따라 외부 根界의 이변에 따라 지극히 완만하게 때로는 발작적으로 변모되어 간다. 그리하여 자아의 적은 晝相만을 안고 단이는 다방객의 멀렬된 세계에도 하나의 공통된 심적 현상을 환기할 수 있으니, 가령 겨울에서 갑자기 多陽한 봄 해빛의 충애를 바든 그들이라면 그들은 일제히 경쾌한 보조와 명랑한 미소의 얼굴로 습관적인 그 거름이 어느 다방 한 집을 차저들어 가벼운 멜로디에 댄스의 한 스태를 사랑할 것도 갖다.(이효석: 77)

위 글의 필자 또한 다방의 외관, 찾아드는 사람들의 심리는 변화하기 마련이지만 공통적인 심적 현상 즉, ‘봄이되면 습관적으로 다방을 찾는’ 것과 같이 ‘다방가기’가 패턴화 되고 일상화되었음을 드러내 준다.

그런데 오후 두 시의 다방 안에는 차를 마시고 담배를 태우고 이야기를 하고, 또 레코드틀 듣는 직업 없는 젊은이들이 있다. ‘구보’는 이들에게서 “인생의 피로”를 느

끼며 그들의 ‘눈’에서 제 각각의 우울과 고달픔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구보는 다료를 경영하지만 “조그만 한 개의 다료(茶寮)를 경영하기도 수월치 않”아 보이는 시인 벗과 “조선문학건설에 열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하루에 두 차례씩, 종로서와, 도청과, 또 체신국엘 들러야 하는” 신문사에 다니는 시인이었던 벗과 만난다. 이를 통해 작품에서 ‘다방’이 단순한 여가공간이 아니라 ‘실직자의 여가공간’임을 알 수 있다.

박태원의 작품이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이나 <명일>만큼 도시의 실업문제를 소상하게 다루지 않지만, 하루에도 4차레이상 다방이나 카페를 드나드는 ‘구보’를 비롯하여 하루 종일 다방에 앉아있는 인물들이 빈번히 등장한다. 이효석의 <공상구락부>에서 또한 간접적으로 ‘찾집’이 실직자들이 모이는 우울한 공간임을 드러낸다.<sup>24)</sup>

또한 다방과 카페는 공적으로 ‘사교’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西洋 사람들의 所謂 『俱樂部』가튼 것은 말할 것도 업거니와 이웃나라 사람만큼도 集會의 自由가 업서서 일년 가야 講演 가튼 講演 하나 들을 수 업고 音樂회 가튼 音樂회 하나 볼 수 업는 이 곳 이 따의 젊은 사람에게 잇서서 극장과 「카페-」는 실로 사막 중의 「오아시쓰」와 가티 다시 업는 위안꺼리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혹 옛던 때에는 일종의 社交機關까지도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종종 「카페-」를 간다.<sup>25)</sup>

그런데 茶를 마시러가는 사람으로 말하면 茶를 마시러만 가는것은 勿論아니다. 亦是社交室이고 또休息室이다. <sup>26)</sup>

위 글은 당시 젊은이들이 카페에 가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즉 사람과 만나기 위한, ‘사교 장소’이기 때문이었다. 집이 협소하여 따로 손님을 초대할 공간이 부족하자 주로 만남은 다방이나 카페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상의 <지주회시>에 나오는 ‘R카페’에서처럼 망년회 등의 집회<sup>27)</sup>를 갖는 곳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24) “공상구락부란 사실 허물 없는 이름이었고 대개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찾집에 들어가서 식어가는 커피잔을 앞에 놓고 음악 소리를 들어가면서 언제까지든지 우두커니들 앉아 있는 꼴들은—좌중의 어느 얼굴을 살펴보아도 사실 부질없는 공상의 안개가 흐릿한 눈자 안에 서리 서리우리 앉을 때가 없었다. 꿈이란 눈앞에 지천으로 놓인 값없는 선물로 배를 채우려고 한 잔의 차와 음악을 구해서는 차례차례로 거리의 찾집을 순례하는 것이다” (이효석, <空想俱樂部>, 《李孝石 全集-마음에 남는 風景》, 대호출판사, 1959, p.77)

25) 김을한, 「世界各國 夜話集」, 『별건곤』 제30호, 1930.7.1.

26) 「茶房雜話」, 『개벽』, 1935.1, pp.106~107.

27) “R카페는똥똥이의부업인모양이었다. 내일밤은A취인점이고객을초대하는망년회가R카페삼층홀에서열릴터이고똥은그준비를말았다. 이따가느지막해서똥은R회관에좀들른단다. 그들은찾집에서우선홍차를마셨다. 크리스마스트리결에서축음기가깨끗이울렸다” (이상, 한국문인협회 편,

이효석의 <공상구락부>에서의 ‘찾집’ 또한 “하는 일이 또렷한 것도 아닌 친한 동무 몇 사람이 모여 차를 마시고 잡담을 하는” 곳이다. 알프레드 델보는 《파리의 즐거움》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웃고 울기 위해서 화창한 날과 길이 필요하고 카페와 카바레와 레스토랑이 필요하다. 우리는 주인공이 되고 목격자가 되기를 좋아한다. 함께 어울릴 사람들, 우리 삶을 지켜봐줄 증인을 갖고 싶어한다”<sup>28)</sup>고 말한다. <공상구락부>에서의 ‘찾집’ 또한 단순히 차를 마시는 공간이 아닌 같은 처지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교의 공간’ 이었던 것이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도 ‘다방’ 은 ‘구보’ 가 시인이거나 시인이었던 벗을 만나는 공간이다.

거리에서 그에게 온갖 종류의 불유쾌한 느낌을 주는, 온갖 종류의 사물을 저주하고 싶다 생각하며, 그러나 문득 구보는 이러한 때, 이렇게 제 몸을 혼자 두어 두는 것에 위협을 느낀다. 누구든 좋았다. 벗과, 벗과 같이 있을 때, 구보는 얼마쯤 명랑 할 수 있었다. 혹은 명랑을 가장할 수 있었다. (중략) 구보는 그에게 부디 다방으로 와 주기를 청하고, (생략) (박태원: 298)

우리 열 점쯤해서 다방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열 점. 응, 늦어도 열 점 반, 그리고 벗은 전차길을 횡단하여 갔다. (박태원: 312)

이제 뒷날 그들은 다시 만나는 일도 없이, 옛 상처를 스스로 어루만질 뿐으로, 언제든 외롭고 또 애닦아야만 할 것일까. 그러나 그 즉시 아아, 생각을 말리라. (중략) 이제 그는 마땅히 다방으로 가, 그 곳에서 벗과 다시 만나, 이 한밤의 시름을 덜 도리를 하여야 한다. (박태원: 316)

“서너 명의 지계꾼들이 웅송그리고 앉아 있는” 남대문 부근에서 ‘구보’ 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의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 한다. 때문에 찾아간 경성역에서 “오히려 고독은 그 곳에 있” 음을 발견한다. 또한 그는 거리에서 “온갖 종류의 불유쾌한 느낌을 주는, 온갖 종류의 사물을 저주하고 싶다 생각하” 며 “제 몸을 혼자 두어 두는 것에 위협” 을 느낀다.

이런 불유쾌한 도시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벗과의 만남’ 을 떠올린다. 관계 속에서 위안을 얻고자 함이다. ‘구보’ 는 “한 잔의 차를 나” 늘 수 있는 벗을 그리워하며, 다방에 앉아 “시인이었던 벗을 대할 때 마음 속에 밝음을” 갖게 된다. 비록 ‘구보’ 는 벗의 의견을 ‘그다지 신용에 두고 있지 않’ 지만 ‘그의 문학론에 앙드레 지드의 말을 인용하’ 는 벗 앞에서 ‘명랑을 가장한 웃음을 웃’ 을 수 있었다.

<지주회시>, 《韓國短篇文學大系 3》, 삼성출판사, 1971, p.251).

28) 크리스토프 르페뷔르 저, 강주현 역, 《카페의 역사》, 효형출판, 2002.

이는 ‘구보’가 토론의 내용보다는 벗과의 ‘만남’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구보’는 문학을 애호하는 벗들과의 만남을 통해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직업을 갖고 가부장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아내를 가져 가정을 꾸리는 형태의 일상을 보편적인 삶의 형태로 받아들여지는 ‘집’을 비롯하여 보편적 일상을 지닌 인물들과 마주치는 ‘거리’와는 달리 ‘다방’은 ‘구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일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이태준의 <장마>에서 ‘낙랑’이나 ‘명치제과’ 또한 이상이나 구보(仇甫)가 목적이 없이 집을 나선 ‘나’를 “기다리거나 하고 있었던 것처럼 반가히 맞아” 주는 공간이며, 근래에 읽은 작품을 토론하며 책을 권하거나 창작의 자극을 받는 장소이다. 또한 낙랑은 동경시대에 사귄 ‘이군’이 있는 곳으로 생활인으로서가 아닌 작가로서의 ‘나’의 사회적 지위를 잃지 않게 해준다. 즉, 이 작품에서 다방은 ‘문인들의 사교공간’으로 제시된다.

작품에서 드러낸 바와 같이 이태준은 「구인회 난해 기타」에서 ‘사교공간’으로서의 다방의 기능을 말한다.

이들 문인들이 다방을 찾는 이유로는 자택의 주거 공간의 협소함을 들고 있고, 다방에서 좋은 향의 커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며,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에게 다방은 책을 읽거나 집필을 하는 전문적인 공간으로 가치가 있기도 하고, 직장이 있는 문인들의 경우, 이곳에서의 문인들과의 만남은 직업의 피로를 씻고 창작에 대한 자극을 얻어가는 일이기도 하다.<sup>29)</sup>

이렇듯 당시 ‘다방이나 카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인들의 공간으로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런데 『삼천리』에는 “가령 한 親友(또는 2-3인)와 더불어 시간의 제약 받지 아니하고 문학, 예술, 세상의 기이한 사실, 더 나아가 인생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러한 곳을 선택하는 바 고급된 다방 애용가” 외에도 “사랑하는 한 여성과 청담하며 애정의 분위기에 잠기려는 세상의 만흔 로맨티스트들”과 “최근과 같이 레코-드와 영화에 대한 극도로 膨溢한 세대에 있어서서는 레코-드를 듣기 위하여 또는 영화의 세계를 차차 이 다방을 일종의 공동 아지트로 해서 기분조케 悠暢하게 모혀” 드는 이들도 있다고 말한다.<sup>30)</sup> 이는 문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류도 다방과 카페에 드나들었으며,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다방과 카페를 사교의 공간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9) 이태준, 「구인회 난해 기타」, 조선일보, 1935.8.1.

30) 이현구, 「「보헤미앙」의 哀愁의 港口, 一茶房 보헤미앙의 手記」, 『삼천리』 제10권 제5호, 1938.5.1, pp.247~248.

이상을 통해 다방과 카페가 여가공간으로서 기능함을 알 수 있었다. 먼저 ‘휴식’ 공간으로서는 ‘거리의 정착 공간’ 이자 ‘피난처’, ‘자유로움’ 을 느끼는 공간이었다. 이는 당시 보편적으로 여겨지던 휴식과 피난의 공간이라는 다방과 카페의 공간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드나들거나 오랜 시간을 찻집에서 머물며, ‘찻집순례’ 라는 풍습이 있던 것처럼 매우 일상적인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실직자들의 우울과 피로가 노정되는 ‘실직자의 여가공간’ 이었다.

또한 다방과 카페는 문인들을 비롯하여 인텔리나 유한자들, 문화를 향유할 만한 경제력이 있는 자들이 드나들며 만남을 갖는 ‘사교의 공간’ 임이 드러났다. 이들은 다방과 카페라는 공간에서 타인을 만나며 유대감을 갖고 안정을 찾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소비 공간

앞에서와 같이 다방과 카페는 “편안히 쉬고 사색하며,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며 “의사소통의 장이나 담론의 공간”으로서 기능을 담당했다. 더불어 돈을 지불해야만 제한된 휴식의 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공간’ 이기도 했다.

문화가 소비의 대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근대에 와서이다. 문화는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수단이 되면서 점점 탈추상화<sup>31)</sup>의 과정을 거치며 ‘상품’ 이자 ‘이미지’ 로서 소비되기 시작한다. 백화점이나 극장, 다방과 카페는 ‘문화공간’ 으로, 화양식(和洋式) 주택은 ‘문화주택’ 으로, 홍차나 커피는 ‘문화인의 기호품’ 으로서 소비된다.

이상의 <날개>에서 ‘내 ‘가 찾은 ‘티이 루움’ 은 열 한시가 좀 지나자 여기저기 치우기 시작한다. 아내가 정해준 시간 이전에 돌아갈 수 없었던 ‘나’ 에게 ‘티이 루움’ 은 완전한 정착공간이 되지 못한다. 또한 쓴 입맛을 거두기 위해 커피를 마시려 가려하지만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알게되자 “얼빠진 사람처럼 이리갔다 저리갔다” 할 수밖에 없게 된다. ‘티이 루움’ 은 돈을 지불해야만 시간과 공간을 제 공받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파리의 「카르티에, 라탱」(羅甸區)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생활과 더불어 안식의 포근한 자리가 이 봄을 기대려 열릴 수도 있을 법 하건만 이곳은 健實 때문에 단조를 참을지언정 생의 향기를 위하여 한 잔의 커피를 사랑하는 등의 부박성을 輕蔑하는 법도의 세계인 까닭인가?<sup>32)</sup>

위 글은 “대학 전문교를 모와 노흔 東小門 부근의 하나의 다방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索漠하다” 고 하며 ‘파리의 「카르티에, 라탱」’ 을 떠올린다. 또한 1926년 『별건곤』 제 1호에 「洋行中 雜觀雜感」<sup>33)</sup>에서는 “파리 카페는 엇더한 곳이나!” 로 시작하여 파리의 명물인 카페에서의 관찰과 경험이 담긴 기행문이 실렸다. 이는 당시 다방과 카페가 서구문화의 상징적인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다방이나 카페에서 소비하는 상품이나 분위기는 거의 서구의 문물들이

31) 전경수는 이 과정을 ‘물상화’ 라 한다(전경수, 《문화시대의 문화학》, 일지사, 2000, p.35)

32) 이현구, 앞의 기사 p.250.

33) 기사에서는 파리의 카페점이 값이 싸서 누구나 자유롭게 갈 만하고, 내부 설비도 나무랄데가 없으며, 음악이 끊일 새 없이 나와 누구나 화려한 것과 화락(和樂)한 기운이 절로 나는 곳이라고 말한다.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며 파리 사람들이 “카페점“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한다고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휴게소요 담화소요 대합소요 밀회소“이다. 예를 들어 “친구끼리 카페점에서 만날 약속을 하여 만나거나, 청년 남녀가 만나 정다운 이야기도 하며, 겨울 추울 적에 하숙서 공부하는 학생이 추위를 피해 와서 오래 머무는 곳이며, 한구석에서는 정신없이 글만 쓰는 이 등등이 있다(정석태, 「洋行中 雜觀雜感」, 『별건곤』 제1호, 1926. 11.1, 필자요약)

다. 이상의 <날개>에서 ‘내’가 떠올린 커피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미인을 데리고 다니는 사나이가 주문한 ‘칼피스’, 생명 보험 회사 외교원인 사나이가 마시는 맥주는 모두 서구문화이다. 즉 다방과 카페는 ‘서구문화를 소비하는 공간’으로 제시된다.

포도주와 빵과-이 두가지의 만찬의 원소 위에 스프와 고기와 과일과 차가 더함은 열두 제자의 절도 위에 현대의 행복을 더함이다. 준보들은 확실히 옛사람들의 희생의 행복보다도 현대적인 문화의 혜택 속에 사는 보다 행복된 후손들이다. 오늘 일요일의 행복은 호텔의 식탁에서 그 마지막 봉우리에 다달은 셈이다.(이효석: 258)

그런데 작품을 통해 문화소비에 따르는 공통의 감정이 표출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이효석의 <일요일>에서 ‘준보’는 꽃가게와 백화점과 영화관, 찻집, 호텔 식당에서의 식사를 문화적 혜택으로 여기며 만족감과 쾌감을 갖는다. 이는 문화가 정신을 고양하고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당시의 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별건곤』에 실린 이선희의 글, 즉 “그 향기로운 맛”에 감동하고, “켄을 폭으로 꼭찔너 먹” 으면 갑자기 자기 자신이 “몹시 올라가는 것갓”은 황홀감까지 느껴지고, 이는 “김치를 젓가락으로 먹는 것보다 한층 더 문화적임에 쾌감을 느낀다”<sup>34)</sup> 것 또한 당시의 문화 소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준다. 더구나 한때 계급문학론을 이끈 박영희조차 “폭신한 쿠션에 내려앉아 한숨을 한번 무의식적으로 내쉬고나서 마시는 아이스티 한잔은 어둠침침한 마음을 밝게 해 준다”<sup>35)</sup>고 말한다. 이러한 점들은 당시 다방과 카페가 소비를 통해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작품이나 잡지신문기사 속에서 1930년대의 다방과 카페는 여가, 사교, 소비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는 유럽적인 카페의 공간성과 일본의 킷사텐(喫茶店; きっさてん)이나 카페의 공간성이 반영된 근대문화공간으로서 기능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당시 다방과 카페가 근대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공간으로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면적인 공간성을 통해 당시 풍속과 문화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소설을 “타락한 사회에서 타락한 방법으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장르”로 보는 골드만의 견해처럼 보편적인 근대문화공간으로 기능하는 다방과 카페를 통해 근대문화의 어떤 점을 드러내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려 하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4장에서는 작품이 형상화해낸 공간성과 사회학적 고찰을 통해 다방과 카페의 내면적 공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4) 이선희, 「漫文, 茶黨女人」, 『별건곤』 제69호, 1934.1.1.

35) 박영희, 「茶街散步」, 『신동아』, 1934.9, p.200.

### Ⅲ. 다방과 카페의 내면적 공간성

3장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다방과 카페의 기능에 따라 3가지 공간성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컨텍스트적인 맥락으로 인해 가능해진 현상이었다. 그런데 다방과 카페의 내면적 공간성들은 표면적 공간성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 1. 일상화 된 여가

여가 공간으로서 다방과 카페는 휴식처이자 피난처로서의 표면적 공간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날개>에서 여가 공간인 ‘티이 루움’에서 ‘나’는 사람들을 보며 “서글픔”을 느끼게 된다.

나는 한 복스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주앉아서 잘 끓은 커피를 마셨다. 총총한 가운데 여객들은 그래도 한 잔 커피가 즐거운가 보다. 얼른얼른 마시고 무얼 좀 생각하는 것같이 담벼락도 좀 쳐다보고 하다가 곧 나가 버린다. 서글프다. 그러나 내게는 이 서글픈 분위기가 거리의 티이 루움들의 그 거추장스러운 분위기보다는 절실하고 마음에 들었다.(이상: 256)

‘나’는 ‘다방’의 익명성으로 인해 안도감을 갖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주 앉”았다는 말을 통해 누군가 곁에 있지 않음에 ‘허전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얼른얼른 마시고 곧 나가버리는 사람들은 ‘나’의 허전함을 더욱 배가시킨다. 본래 다방이나 카페는 ‘자유로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과 어울리며 삭막한 도시에서 ‘인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다방’이 있는 곳이 ‘경성역’임을 볼 때 사람들은 기차 출발시간 혹은 도착 시간들에 쫓기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자정 전에 들어오지 말라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확한 경성역의 시계를 찾아온 ‘나’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한 잔의 커피’만을 즐길 뿐 커피 한 잔이 주는 넉넉한 여유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또한 ‘티이 루움’은 객이 뜬해지자 열한시가 되자 “이 구석 저 구석 걸어치우기 시작”한다. 이에 ‘나’는 “여기도 결코 내 안주의 곳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한다. ‘티이 루움’ 또한 일상의 패턴에 의해 운영되는 공간이므로 내가 일시적으로 밖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임을 인식한 것이다. 결국 ‘티이 루움’은 탈일상의 공간이 아닌 ‘일상의 한 영역’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종로 네거리—가는 비 내리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 곳에 끊임없다. 그들은 그렇게도 밤을 사랑하여 마지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렇게도 용이하게 이 밤에 즐거움을 구하여 얻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일순, 자기가 가장 행복된 것같이 느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얼굴에, 그들의 걸음걸이에 역시 피로가 있었다. 그들은 결코 위안받지 못한 슬픔을, 고달픔을 그대로 지닌 채, 그들이 잠시 잊었던 혹은 잊으려 노력하였던 그들의 집으로 그들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박태원: 329~330)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구보’가 밤거리에서 즐거움을 구할 지도 모를 사람들에게서 ‘피로와 슬픔, 고달픔’을 본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여가조차도 일상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피로>에서의 ‘나’ 또한 거리에서 우울함과 피로를 발견한다. 신문사의 요구대로 쓰고 싶지 않은 원고를 써야했던 ‘R’의 경우를 통해 인생의 피로를 느낀다. 관청 앞 샐러리맨들의 복잡한 행렬에서 본 고무장화들의 피곤한 행진과 그 고무장화를 물로 닦고 솔질을 하며 때로는 전당포에도 드나들어야 할 가엾은 아낙들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삶의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스무 명도 넘는 조선인들이 얼음이 낀 한강 위를 고무신이나 짚신을 신고 건너는 살풍경은 “나의 마지막 걸어 갈 길”로 느낀다. 결국 ‘내’가 거리에서 본 것은 근대 도시 경성의 민중들의 무겁고 피로한 일상이었다.

<날개>에서 ‘내’가 본 서글픈 광경은 일상에 대한 무게와 강박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구보’와 <피로>의 ‘내’가 만난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현대적이기 때문에 일탈적이라 할 수 있었던<sup>36)</sup> 다방과 카페는 내면적으로는 일탈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근대적 일상이 삶 전체에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다방과 카페에서는 일상을 갖지 못한 이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곳이며, 그들에게서는 피로와 우울이 발견되기도 한다.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처럼 ‘다방’은 아예 일상 공간과 동일하게 등장한다. 다방에 가는 일을 ‘마땅히’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집’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구보’에게 다방은 당연한 행선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루에도 네 번이나 다방을 드나드는 ‘구보’에게 ‘다방’이라는 공간은 ‘일상적인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효석의 <공상구락부>의 직업이 없는 네 친구 또한 매일 ‘찾집’을 순례하는데, 이 ‘찾집순례’는 당시 유행하던 풍습이었다.

<피로>의 ‘다방’에는 위안과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온다. 오후 두시에 피로한 몸을 끌고 다방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피로’를 발견한다.

사람들은 인생에 피로한 몸을 이끌고 이 안으로 들어와, 2尺X2尺의 등탁자를 하나씩 점령하였다. 열다섯 먹은 노마는 그 틈으로 다니며, 그들의 주문을 들었다. 그들에게는 위안과 안식이

36) 김진송, 앞의 책, p.259.

필요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어린 노마에게 구한 것은 한 잔의 홍차에 지나지 못하였다.(박태원: 122)

그러나 여기서 다방은 피로를 해소하거나 휴식이나 안도감을 얻을 수 없는 곳이다. ‘나’는 다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피로’를 발견하지만 위안과 안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다방은 “2尺X2尺의 등탁자와 한 잔의 홍차” 밖에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주인공 자신조차 기쁨이 되어주던 “한 장의 Elegy”도 7시간여 동안 열두 번 이상 듣게 되자 “역시 피로한 것”이 되어 버림을 느낀다. 또한 차가운 레몬티를 기대했던 ‘나’에게 ‘노마’가 가져다준 “뜨거운 레몬티”는 불쾌함을 준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조선문단이 침체하여 있는가를 한탄하고, 아울러 온갖 문인을 통째”하는 ‘문학청년들’은 ‘나’를 불편하게 한다. 그는 결국 쓰던 원고를 노마에게 맡기고 다방을 나온다.

오후 두시에 다방에 앉아있는 청년들은 실직자임이 분명하다. 그들의 피로와 우울은 실직이라는 현실에 대한 표출이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구보’ 또한 ‘다방’의 여러 인물들에게서 일상의 피로를 발견한다.

오후 두 시의 다방 안에는 차를 마시고 담배를 태우고 이야기를 하고, 또 레코드를 듣는 직업 없는 젊은이들이 있다. ‘구보’는 이들에게서 “인생의 피로”를 느끼며 그들의 ‘눈’에서 제 각각의 우울과 고달픔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구보는 다료를 경영하지만 “조그만 한 개의 다료(茶寮)를 경영하기도 수월치 않”아 보이는 시인 벗과 “조선문학건설에 열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하루에 두 차례씩, 종로서와, 도청과, 또 체신국엘 들러야 하는” 신문사에 다니는 시인이었던 벗과 만난다. 이를 통해 작품에서 ‘다방’이 단순한 여가공간이 아니라 ‘실직자의 여가공간’임을 알 수 있다.

박태원의 작품이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이나 <명일>만큼 도시의 실업문제를 소상하게 다루지 않지만, 하루에도 4차례이상 다방이나 카페를 드나드는 ‘구보’를 비롯하여 하루 종일 다방에 앉아있는 인물들이 빈번히 등장한다. 이효석의 <공상구락부>에서 또한 간접적으로 ‘찻집’이 실직자들이 모이는 우울한 공간임을 드러낸다. 이들이 우울함은 ‘실직’이나 ‘무직’이라는 비일상으로 여겨지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지식인들은 일상의 탈출구로서 다방이나 카페를 찾았을 것이다. 그러나 탈출구로서 보다는 도시의 우울함과 피로를 확인하는 공간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당시 조선이 가지고 있던 ‘실업’이라는 문제적 상황을 드러낸다.

1930년대 일제하 조선 노동자의 임금은 생계비의 절반도 못되는 수준이었는데, 토지 상실로 말미암은 이농자의 격증과 연중행사처럼 되풀이되던 수재와 한재로 이농자가 도시에 집중되어 실업난이 격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반

기에 걸쳐 조선인보다 더 저임금이었던 중국인 노동자가 해마다 수만 명씩 인천, 진남포, 신의주항을 경유해 입국함으로써 조선인 실업자와 무직자가 직업을 갖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그 중에서도 지식인들의 실업률이 심각하였는데, 이는 근대적 교육기관을 통해 해마다 많은 고등교육 이수자들이 양산되어 소비 도시인 경성에서 제대로 직업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조선의 공업화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노동자와 숙련노동자를 필요로 하였지만 이것은 일본에서 수출되었던 일본인 기술자로 충당하였다. 때문에 조선인은 일본인 노동자의 반도 안 되는 임금과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단순노동의 기회만이 주어졌다. 따라서 양산된 지식인들은 그들의 기대에 맞는 직업에서 소외되는 한편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험겨운 노동에 선했던 것도 못했다. 깊은 절망과 소외 그리고 자괴감을 맛보며 외형적으로 근대화된 경성거리를 방황하게 되었다.<sup>37)</sup> 그런 지식인과 실직자들에게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이자, 지적 우울감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였으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피로와 우울은 제거되지 않았을 것이다. 조영복은 “일제 군국주의의 심화는 지식인들에게 좌절과 실직 등에 처하게 했고, 관계의 비정상성”<sup>38)</sup>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차단시켰다고 말한다.

이들의 피로와 우울은 일상의 규율화와 관계가 깊다. 근대 도시 경성에서의 개인은 공장과 같은 공적 체계로 편입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일상은 사적영역이 발생한다. 그 과정이 여가가 발생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일터와 가정이 분리되고, 일터의 시공간 규율이 강제성을 띠면서 개인의 일상은 관리되는 차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사적영역과 관리되는 일상의 차원은 완전한 별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적영역마저도 일상의 영향 하에 있다.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도시 자체가 근대적 일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길 수 있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작품이 이상의 <날개>이다. 작품은 ‘나’의 공간경험을 통해 근대적 일상이 지배하는 도시공간의 성격을 드러낸다. ‘나’는 외출을 통해 ‘거리’에 나가게 되면서 확장된 공간을 경험하는데 특히 ‘티이 루움’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경험한다. 이는 근대체험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계기를 통해 ‘나’는 ‘집(방)’이라는 공간에서의 아내와 나의 관계가 기형적임을 깨닫게 된다. 이는 대상이 된 작품들 중 근대적 일상이 지닌 부정성을 가장 극단의 상황을 통해 형상화 한 경우이다. 그런데 ‘방’에서의 탈출을 시도하는 ‘나’는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에 올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매달려 조종되는 기성품, 위

37) 이계옥,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30 참조.

38) 조영복, 앞의 책, p.134.

조된 제품과도 같은 존재들을 목격하게 된다. 이는 도시 전체가 자본주의적 체계에 지배당하는 근대적 일상의 공간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인물들의 다방과 카페 체험을 통해 발견된 사람들의 서글픔과 우울, 피로는 모두 ‘근대적 일상’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공적 영역으로서의 일상이 강제적 성격을 띠게 되자 관리되기 용이하게 정형화되고 규율화였으며 이는 많은 강박과 스트레스를 야기했다. 또한 근대적 일상이 생활의 근거로 자리잡음으로 인해 많은 실업인과 무직자들은 일상을 갖지 못함에 압박감과 피로를 느꼈다. 그러나 이 또한 근대적 일상에 의해 야기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작품들은 다방과 카페라는 일상화된 여가공간을 통해 일상의 강제적 성격과 규율화를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부정성으로 연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 피상적 인간관계

3.2절에서 다방과 카페가 사교공간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작품 속 주인공과 인물들의 만남, 타자에 대한 인식들은 사교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의 진정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구보’는 “일찍이 인사를 한 일이 있었”던 사나이와 구보의 서먹한 관계를 드러낸다. 이는 다방이 사교장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기를 볼 때마다 황당하게, 또 불쾌하게 시선을 돌리는 그 사나이를, 구보는 오직 괴이하게만 여겨왔다. 괴이하게만 여겨 오는 동안은 그래도 좋았다. 마침내 구보가 그를 그라고 알아 낼 수 있었을 때, 그것은 그의 마음에 암영을 주었다. 그 뒤부터 구보는 그 사나이와 시선이 마주치면, 역시 당황하게, 그리고 불안하게 고개를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박태원, 287~288)

일전에 만난 적이 있던 사나이와 구보의 관계는 애매모호하다. 다방은 익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습관적으로 드나들게 되면서 익숙해지게 된다. 그러나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선을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구보’ 또한 사나이와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 “다방 안의 한 구획을 그의 시야 밖에 두려 노력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섭의 번거러움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다방’은 한 공간 안에서도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sup>39)</sup> ‘피상적인 공간’으로 나타난다.

<장마>에서 ‘다방’은 ‘조선중앙일보’와 같이 서로 간에 가벼운 인사나 악수만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아닌 이상이나 구보가 목적이 없이 집을 나선 ‘나’를 “기다리거나 하고 있었던 것처럼 반가히 맞아” 주는 공간이며, 근래에 읽은 작품을 토론하며 책을 권하거나 창작의 자극을 받는 공간이다. 그런데 ‘나’는 평소 낙랑에서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이균’이 사라지자 그의 신상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로 인해 ‘종로 일대에서는 가장 아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인 중앙일보사의 모든 사람들과 또 지금부터 만났으면 하는 구보나 이상이나 월파나 일석이나 모두 “개인 신상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모두 ‘다방’이 깊이 있는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피상적인 관계의 공간’임을 말해준다.

이들이 피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이유로는 근대적 일상의 영향에 의함으로 여겨진

39) <피로>에서는 한 사람의 공간을 ‘2尺×2尺의 등탁자’로 표현하며, <날개>는 타인과 구획지어진 공간을 ‘한 박스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주앉아서’라고 표현한다.

다. 도시적 삶을 유지함에 있어 ‘생활’은 무엇보다도 중요시되어졌다. 이는 생활이 있는 자에게나 없는 자에게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그들을 삶을 유지시키기 위해 적응하고 체화해야 하는 ‘문명적 생활방식’이다. <날개>의 ‘티이 루움’에서 ‘내’가 관찰한 사람들이 모두 바쁜 일상으로 인해 ‘한 잔의 커피’만을 즐길 뿐 인간적 교감을 나누지 못한다. 또한 <공상구락부>의 ‘천마’는 취업을 하여 즐겁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게 되고, ‘백구’ 또한 마찬가지가 되어 ‘카페’에 가서 친구들과 공상을 나눌 여유조차 잃게 된다. 이태준의 <장마>에서 ‘나’ 또한 “조선중앙일보사”의 벗들이 자신에게 반가움을 느껴도 “쓰던 것을 수긋하고 써야”하거나 “전화를 받”고 “광고 몇 단인가 알아봐”야 함에 외로움을 느낀다. 이러한 현상은 문명적 생활방식을 강요받는 실직자나 무직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구보’는 ‘다방’에서 만난 생활이 있는 벗은 저녁이 되자 이내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들이 피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이유로는 근대적 일상의 영향에 의해서라고 여겨진다. 그 이유는 도시적 삶을 유지함에 있어 ‘생활’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생활이 있는 자에게나 없는 자에게나 마찬가지였다.



### 3. 무주체적 소비

3.3절에서와 같이 다방과 카페는 ‘소비공간’의 기능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화폐와 시공간, 상품, 분위기 등의 교환을 통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본주의적 공간이다. 그 상품과 분위기는 모두 서구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다. 특별한 점은 근대문화의 소비를 통해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인물의 내면에 의해 드러난 문화소비처로서의 내면적 공간성은 표면적 공간성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다방’은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소비방식이 비판적으로 포착되는 곳이다. ‘구보’는 ‘중학시대 열등생’이 “날마다 기름진 음식이나 실컷 먹고, 살진 계집이나 즐기고, 그리고 아무 앞에서나 금시계를 꺼내 보고는 만족”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구보’는 사나이가 주문한 “가루빼스(칼피스라는 음료)가 외설(猥褻)한 색채”를 갖는다고 생각하며 “어느 생명 보험 회사 외판원”인 중학 때 친구는 “몇 병씩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우월감과 행복을 느낄” 것이라 생각하며 그와의 접촉을 불쾌하게 여긴다. ‘경성역’에서는 시골에서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골신사가 노파와 되도록 거리를 가지려는 것을 보고 ‘구보’는 그를 업신여긴다. 결국 ‘다방’은 타인과의 차이를 만들고 거기에서 우월감과 행복을 느끼며 남을 업신여기는 ‘부르주아적 속물성’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이태준의 <장마>에서 ‘나’는 ‘강군’이 ‘나’에게 맥주와 비싼 런치를 사주며 ‘여학생을 소개 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에 불쾌함을 느낀다. 이런 점에서 다방과 카페는 이미 상품화되고 물질화 된 문화소비를 통해 욕망을 충족하고 우월감을 느끼는 ‘자본주의적 속물성’이 드러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방과 카페에서의 문화소비에 있어서 자본주의적 속물성이 포착되는 것은 시대적 문화기제와 관련이 깊다. 그것은 서구 및 일본의 ‘문명론’이 조선에 유입되고 주입되는 과정 의미한다.

근대 초기 ‘문명’은 곧 서양이 지닌 힘의 근원이었다. 이런 문명은 새롭고 신기한 문물과 함께 들어왔다. 그것은 처음에는 서구문물이었는데 서구문화의 발견은 물질을 통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명은 보편성을 띠며 다른 나라를 타자화시키고 비문명국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문명적 사고방식이 일반에게 있어서는 ‘발전적인 것’ 내지 ‘새로운 것’으로 인식되던 서양의 상품을 소비하며 ‘문명인’을 자처하는 식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자본주의적 속물성은 이 ‘타자화’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에 유입 될 당시 다방과 카페는 상류층의 전유공간이었다. 서양식 다방의 시초라 한다면 조선에서 커피를 가장 먼저 맛 본 고종이 덕수궁에 ‘정관헌’

일 것이다. 고종은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양음악을 즐겨 듣고, 외국 공사들과 연회를 갖기도 했다.<sup>40)</sup>

황실가족이나 외국 공사 외에도 출입할 수 있었던 다방은 ‘한국 최초의 다방’으로 알려져 있는 1896년에 만들어진 ‘손탁호텔’에 부속 다방<sup>41)</sup>이다. 이곳은 주로 외교관들과 조선 상류층만이 드나드는 공간이었다.

京城도 大都市라고 여러 가지가 都市의要素를 準備中特히 喫茶店이 늘어가는것이 奇現象이다. 爲先 朝鮮사람들의 經營中에도 좀 顯著한것만으로도 「빠—」는 그만두고라도 맥시코, 뽀아미, 鐘路그릴, 로렐, 樂浪과로, 푸라터느, 요새새로난 제네바等이다. 其他에도 小小茶店이 不知其數다.<sup>42)</sup>

1911년에 조선에 문을 연 카페 ‘타이거’ 또한 일본인들만 드나들었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일본인 거주지역이었던 충무로와 명동 일원에 킷사텐(1923년경)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일본인들이 조선인 거주지인 종로로 이동하게 되면서 종로에도 조선인이 경영하는 다방(1927년)<sup>43)</sup>과 카페(1930년 초반)<sup>44)</sup>가 문을 열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

40) 재인용, 강준만·오두진, 《고종 스타벅스에 가다》, 인물과 사상사, 2005, pp.23~24.

41) 김은신, 「호텔 커피숍(이것이 한국 최초)」, 경향신문, 1996.12.21, p.28.

42) 「茶房雜話」, 『개벽』, 1935.1, pp.106~107.

43) 근대적 다방의 원조는 1923년경 충무로 3가에 세워진 ‘후다미(二見)’이다(이봉구, 「한국 최초의 다방 - 카카듀에서 에리자까지」, 세대, 1964.4, p.339). 이 시기의 다방은 대부분 킷사텐(喫茶店)이라 불리는 일본식 다방이었으며 일본인들을 비롯한 조선의 고위 관료층, 개화된 지식인이 이용했을 뿐 일반대중과는 거리가 있었다. 명동에도 1927년경부터 근대식 개념의 다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후 명동은 ‘다방의 거리’라 할 만큼 다방이 수없이 들어서게 된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pp.125~126)

1927년 종로에 조선인이 경영하는 ‘카카듀’라는 다방이 문을 열게 되면서 ‘다방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이후 1928년경 인사동에 영화배우 복혜숙이 경영하던 ‘비너스’가, 1929년 종로에는 전문적 다방인 ‘맥시코’가 들어선다. 이어 1931년에는 동경 미술학교를 나온 이순석이 경영한 ‘낙랑팔러’와 작가 이상이 경영했던 ‘제비’등이 생겨났다. 또한 1930년 10월에 현재 신세계 본점 건물을 완성한 미즈코시 백화점에는 대형식당에 커피숍과 식당이 있었다. 그 커피숍에는 “오전에는 모닝커피 손님으로 가득 찼고, 점심·저녁 식사 시간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양정식과 원두커피가 유명하였다(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앞의 책, p.125)고 한다.

1936년 ‘경성도시문화연구소’에서 펴낸 『신판대경성안내(新版大京城案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방의 범람시대’라고 할 만큼 다방이 만연해지는데 이에 대해 “이 거리 저 구석에 멋지게 장식된 다방이 급뿔포로 증가했다”고 기록 할 만 한 정도이다.

44) 1930년대 경성의 유명 카페로는 ‘菊水’, ‘丸비루’, ‘명치현’, ‘라디오’, ‘바론’, ‘엔젤’, ‘왕관’, ‘백마’ (이상 명동, 회현 일인가(日人街)), ‘종로회관’, ‘낙원회관’ (이상 종로) 등이 있었다. 경성 지역의 카페는 1920년대 이후 일본인들이 거주하였던 본정을 중심으로 퍼져나갔고 1930년대 초반 조선인들의 근거지였으며 본래는 기생집이 있었던 종로까지 확장되었다.

치며 다방과 카페가 일반적인 문화공간으로 여겨지게 된다.

하지만 다방과 카페문화가 상류문화라는 인식, 서구문화가 상류문화라는 인식이 여전히 문화소비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문화소비방식에서 부정적 양상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효석의 <일요일>은 근대문화를 향유하는 것 자체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드러낸다.

광택한 황무지에 여전히 사랑이며 야심이며 만족이며 행복이며 하는 것이 남을 것인가? 잔칫날같이 변화한 거리의 행복이—꽃뭉음이, 백화점의 관능이, 음악의 신비가, 만찬의 기쁨이 남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대체 무엇하자는 것인가? 얼마나 허무하고 하잘 것 없는 것인가? 지구의 제전은 허공 위에 널찍을 깔고 그 위에서 위대한 춤을 추는 광대의 놀음과 무엇이 다른 말인가?(생략) (이효석: 263-264)

‘준보’는 백화점, 영화관, 찻집, 호텔식당 등이 주는 문화적 혜택에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나 호텔에서 식사를 하던 중 동무가 ‘연’이라는 여인의 시신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준보’는 “만찬의 기쁨도 음악의 신비도 백화점의 관능도 꽃뭉음의 사치도 한꺼번에 줄달음질치면서 비누거품처럼 허무하게 꺼져버리는 것”을 느끼게 된다. 즉, ‘준보’는 죽음이라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문화적 혜택이 주는 행복이 영원하지 못함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는 ‘준보’의 문화소비가 무자각적이고 무주체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문화가 ‘관능과 신비, 기쁨’과 같은 세속적인 욕망과 이를 충족하기 위한 소비가 짝을 이루어 향유되어져 왔던 것이다.

비슷한 경향은 다른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한철야의 <태양은 병들다>에서도 양주와 유행가, 왈츠, 흥차라는 서구문화적 요소들을 들어 “서양 콧대 바우가 먹는” 양주

---

카페는 1932년경 종로관내에만 338개소나 있었으며(「카페經營網 北村에 進出-음식점수가 굉장히 늘어 昨年보다 三倍激增」, 동아일보, 1932.5.5), 당시 종사하는 여급의 수가 “목단(牡丹)에 스물하나, 락원(樂園)에 쉬흔 셋, 평화(平和)에 스물넷. 이러케만 처도 그 수효가 역시 수백명이나” 된다(록안경, 「카페女給 언파레-드」, 『별건곤』 제57호, 1932.11.1)하니 당시 카페가 얼마나 번창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참조: 빈한한 북촌(北村)에 나날이 느러가는것은 『카페』와 그에가까운 음식점들이다. 작년 만하야도 종로서 관내에 카페와 음식점이 二백八十개소에 불과하든것이 금년봄에드러서 겨우 四개월동안에 四十八개소가 증가하야 三백二十八개소나 된다.그중에도 현저히 증가된것은 재작년까지 六개소에 불과하든 카페가 금년봄에 이르러서는 十七개소나된것이오 카페에 근사한 음식점이 三十여개소가 증가된 것이다. 그가티 카페가 증가된원인은 남촌의 일본인들이 차츰 조선인의 북촌으로진출한가답인데 수년전만하야도 북촌일대 일본인의 경영하는 카페라는것은 차저볼래야 볼수업든것이 지금에와서는 카페十七개중에 조선인五개의 약二배반에 해당한十二개소가 일본인의 경영하는카페이라는 것이다.(「카페經營網 北村에 進出-음식점수가 굉장히 늘어 昨年보다 三倍激增」, 동아일보, 1932.5.5 발췌))

으레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걸 못 먹는 것을 오늘날 청년의 수치로 안다는 대목이 나온다. 또한 “유행가를 모르고 왈츠를 모르고 홍차 맛을 모르는 것을 수치로 안다”는 대목이 나온다. 이는 서구문화에 대한 무의식적, 무자각적 동경을 역설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문화소비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이 포착되는 것은 문화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본다. 그리고 이 과정 또한 시대적 문화기제가 작용했다고 여긴다.

그것(홍차: 인용자)은 文化人으로서 없으면 아니 될 嗜好品의 하나입니다. … 그것이 文化人의 嗜好에 適合하는 까닭인 것은 물론이고 더구나 疲勞를 恢復하고 意識을 明瞭케 한다는 의학적 원인에 歸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文化가 上向하면 할수록 점점더 紅茶가 必要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안할 수 없습니다.<sup>45)</sup>

위의 글은 당시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문화인 또는 문화가 지향해야 할 상태로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홍차라는 상품이 ‘문화인’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긴다는 점에 있다.

전자는 도달해야 할 공통의 목표로서 이미 ‘문화인’을 상징하고 있다. 문화가 인간의 삶에서 의미를 갖게 된 데에는 1920년대의 ‘문화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문화주의에서 문화란 ‘자아의 자유로운 향상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문화를 통해 갖게 되는 진선미를 “자아가 자아답게 된 인격의 발현 형식”이라고 이해하며 문화를 교화, 계몽, 인격완성 등의 의미로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화는 인간다워지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수단이 된 것이다. 위 글은 문화를 중시하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후자는 문화인의 중요한 요건으로 여겨지기에는 근거가 불분명한 홍차를 문화와 연관시키고 있다. 의학적 원인에 따른다고는 하지만 기사대로라면 ‘문화인=피로가 없고 의식이 명료한 사람’이라는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제의 식민 지배 수단이기도 했던 문화주의는 교양, 인격을 중시하는 풍조를 조성하며 교양을 갖고 인격을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며 일상을 조직하게 된다. 이를테면 위와 같이 ‘홍차는 문화인의 기호품’이라는 식으로 소비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 글은 이는 문화가 어떻게 일상을 조직하는지를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화신 앞 네거리까지가 송영호 군에겐 거주구역이고, 계서부터 남쪽으로 본정을 돌려 명치정 골목을 돌아 내려오는 건, 이를테면 여행을 하는 셈이다. (중략)

45) 「紅茶와 文化人」, 『조광』, 1938.2, p.331.

정성우편국 앞인데 벌써, 고소한 커피 냄새가 흥건하다.

미쓰코시로 올라가서 한잔씩 먹고, 내려와서는 본정통을 어귀에서부터 천천히 더듬어 들어간다.

광문당을 거쳐, 대관옥을 둘러, 가네보오로 다리 마루쟁까지. 마루쟁에서는 강선필 군이 신간을 한 권 사는 데 얹혀서 송영호 군도, 마침 눈에 뜨인, 모량의 『밤이 열린다』를 샀다. 심히 관능적이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떤가 하고 읽어보겠던 것이다.

명치정을 빠져나오다가는 XXX에 들앉아서 텐뿌라로 점심을 먹었다.

XX다방에 들러서는, 커피와 음악으로 기름지게 먹은 점심을 삭였다.

드디어 남부 일주의 여행을 마치고 둘이 정자옥 앞에서, 다시 종로를 향하여 걷기 시작한 것이 그럭저럭 오후 네시<sup>46)</sup>

위 글은 화신 앞 네거리부터 남쪽으로 본정을 둘러 명치정 골목으로 내려오는 여정이다. 이는 다른 작품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안희남<sup>47)</sup>의 <상자>에서 “바(bar)나 티이 루움” 또한 직업 없이 거리를 헤매는 ‘내’가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 등장한다. ‘나’는 아내의 장롱 속 상자에서 금비녀와 가락지를 꺼내 전당포에 주고 110원을 마련하게 되는데 친구(박군)의 돈 70원을 갖고 나머지는 ‘히라다’에서 런치를 먹고, ‘멕시코’에서 아이스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활보한다. <일요일>에서 ‘준보’의 여정 또한 혼잡한 네거리에서 꽃가게, 영화관, 백화점, 찻집, 호텔(식당)으로 이어진다. 이는 문화를 향유하는 형태가 정형화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백화점이나 서점, 일본음식점, 다방 등을 다니며 근대 문화를 소비한다.

이러한 문화소비에 관여하는 것은 문화정책 뿐만이 아닐 것이다. 잡지나 신문 등의 미디어는 커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했다.

1926년 9월부터 부인과학란에 “카-피의 효력”이라는 제목에 “유효성분카페인은 흥분재로 몸에 유익”하다는 기사가 등장한다. 또한 1927년 10월 동아일보에는 “카피차끄리는법 - 카피의분량은얼마 - 用器와牛乳의 使用方法”이라는 기사<sup>48)</sup>가 등장했다. “가을도다되었고겨울이옵니다 카피차에용의기절입니다 그런데 각가당에서는 카피차를 맛나게만들어먹어지지아니한다하야주부되는분들이짜증을내는레가만습니다”로 시작하

46) 채만식, <종로의 주민>, 《채만식전집8》, 창작과비평사, 1989, pp.158~160.

47) 안희남은 『삼천리문학』의 「作家日記, 紫煙과 讀書」라는 글에서 1월 27일 『삼천리문학』에서 작가일기를 10枚쯤 써달라는 통지를 받고 1월 28일에는 秉輝와 秉殷이 두 놈 보아 준다고 시간을 보낸다. 돈이 있었으면 나가서 점심 좀 잘 먹고 영화를 구경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며 레코-드나 듯고 왔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그리고 1월 29일에는 길에서 又香과 상봉. 티이 루움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그와 헤어져서 人文社로 崔載瑞씨를 방문하고 朝鮮日報 출판부에 가서 잡담을 나눈다. 이를 통해 안희남이 실제로도 일상에서 커피를 떠올리고 카페를 빈번하게 드나드는 작가였음을 알 수 있다.(안희남, 「作家日記, 紫煙과 讀書」, 『삼천리문학』 제2집, 1938.4.1)

48) 「카피차끄리는법 - 카피의분량은얼마 - 用器와牛乳의 使用方法」, 동아일보, 1927.10.27.

여 커피의 취급방법, 필요조건, 커피 물 끓이기, 금속포트, 향기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커피에 대한 호기심은 발생했지만,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구와 커피가 충분히 우리나라를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는 가장 간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다방이나 카페가 도시에서 유행하게 된 원인이 될 것이다.

당시의 신문이나 잡지가 커피의 소비와 다방·카페 취향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커피에 대한 상반된 기사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커피는 술, 담배와 함께 몸에 해롭다는 견해와 무해하다는 견해이다. 1932년 4월 기사에 의하면 “만히먹지 아니하면 커피는무해하다” 49)고 하며 “백五十잔부터는 해롭다”고 말한다. 미국 뉴욕대학 생리학교수의 견해를 빌어 “커피가 사람의 몸에 미치는 영향은 九十%의 사람에게는 무익무해하다”고 말하며 카페인이 몸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백오십잔 부터이며 그 전까지는 무해하다고 말한다. 백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로 볼 때 사람에게 무해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리고 “실상 커피를마시면 심기가상쾌하며 일시적이라도 기갈을면하게하고 피로를 회복시키어주는데 존효과를 가지고잇”다고 한다.

그러나 1936년에 들어서는 시카고대학 교수의 의견을 빌어 “자기前고-히 한잔까지는조타” 50)고 하며 “취침전의 고-히는 한잔까지는그리수면에방해가안되지만 두잔이상 이되면 잠을 자지못하게 된다”고 말한다. 뿐만아니라 1939년 8월에는 “커피와주름살 - 너머마시면해로워요” 51)라는 기사가 실리며 “커피나홍차가신경을자극해서흥분되는 것은 거기포함된 여러카로이드의 작용이”라고 말하며 “진한차를너너먹으면 얼굴에 주름살이잡힌다는것도 허튼소리는 어니니까 젊은아씨들 께서는 특히주의하실필요가 잇”다고 말한다. 갑자기 커피는 몸에 해로운 음료로 전락하게 된다. 52)

몸에 해로운 음료로 보도된 시기는 1938년부터 1940년대가 되면 커피가 한잔에 “四

49) 「만히먹지아니하면 커피는무해하다 - 백五十잔부터는 해롭다」, 동아일보, 1932.4.28.

50) 「자기前고-히 한잔까지는조타」, 동아일보, 1936.5.12.

51) 「커피와주름살 - 너머마시면해로워요」, 동아일보, 1939.8.29.

52) 『개벽』에서는 시인 彈實 金明淳에 대한 기사에서 “제일 무서운 이약이 거리는 한번 급사가 커피를 갖다 주었더니 그는 怒氣를 내고 退却하여 왈 『이 상식이 없는 놈이지 월중 행사가 있을 때에 커피를 먹으면 해로운 줄도 모르느냐?』 하던 것” 이 기사의 내용으로 나온다 (『女記者 群像』, 『개벽』 신간 제4호, 1935.3.1), 또한 『동광』에서는 제씨라는 필명의 기자가 신년을 맞아해 몸을 튼튼히 해야하며, 그 방법으로 ‘식사’면에서는 “強度の 커피, 葉茶, 苦椒 等 刺戟이 甚한 食物을 可及의 忌避” 해야 한다고 한다(제씨, 「우선 健康, 일꾼의 몸튼튼부터, 나의 健康法」, 『동광』 제29호, 1931.12.27) 당시 다방이나 카페에 가는 일이 유용했지만 커피를 건강에 해로운 음료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별건곤』에서는 “물 한 그릇은 생명수요, 기사희생의 량양이라 아니할 수 업다. 다른 아모것도 이때의 물을 못 당한다. 사이다·커피·라무네·홍차·이것들은 이때에는 아모 힘도 업다”고 하며 커피보다는 냉수를 마실것을 권장하는 기사도 나온다(제대병원 어철, 「衛生講座, 人生과물 冷水를먹어라, 都會病과 冷水」, 『별건곤』 제49호, 1932.3.1)

十錢이나 하게 되어 本町署에서暴利茶房을團束”<sup>53)</sup>을 하게 되고, 커피구독난으로 가짜 품까지 출현<sup>54)</sup>하거나 “오크라”라는 커피 대용품이 등장<sup>55)</sup>하며 “콩으로 國產 커피를 제조하기 위한 東亞커피有限會社와 咸南食品工業會社가 咸鏡南道 元山에 설립”되기도 한다.<sup>56)</sup> 대전에서는 “일용필요표상품 커피, 홍차, 등이 잠적”<sup>57)</sup>하는 시기이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커피가 부족해져 “伊太利서는 커피도制限”<sup>58)</sup>하게 된다. 즉 수입품인 커피와 홍차 품귀현상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커피에 대한 보도내용의 차이와 국제적 정세로 볼 때 당시 신문이나 잡지가 근대문화의 소비관계에 관여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문화를 향유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결국 문화가 수단이 된, 강제된 욕망을 갖게하는 문화로 인해 주체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주인공들은 다방과 카페에서 문화를 소비하며 타인과의 차별성을 인정 받는다고 여기거나 문화를 무의식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인물들을 발견한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문화가 가진 매커니즘에 의해 형성된 일반적인 인식에 근거한다고 본다. 작품은 문화소비를 통해 타인과 차별을 두려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자본주의적 속물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또한 문화향유가 삶의 필수조건이자 행복과 만족을 준다는 인식 자체에 대해 회의하거나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장을 통해 작품에서 다방과 카페는 기본적으로 여가를 통해 안식을 얻고자 하며 공동의 장소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코자 하고 문화의 소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가의 공간으로서 다방과 카페는 규율화 된 일상으로 인해 우울과 피로가 누적되어 있으며, 일상에 대한 강박으로 인해 피상적인 인간관계가 드러나는 공간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화소비를 행복의 조건으로 인식되어져 왔지만 자본주의적 속물성을 드러내기도 하며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의문과 문화향유에 대한 허무함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드러난다. 본고는 이를 근대가 가져온 자본주의적 시스템의 문제 하에서 벌어지는 문제들로 보며 작품들은 근대문화의 상징적 공간인 다방과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노정시켰다고 본다.

53) 「“커피” 한잔四十錢 - 本町署에서暴利茶房을團束」, 동아일보, 1940.6.8.

54) 「茶房의엘레지 - 커피求不得·假짜品出現」, 동아일보, 1940.6.8.

55) 「커피-대用品 “오크라”는 무엇?」, 동아일보, 1939.5.25.

56) 「이달에 콩으로 國產 커피를 제조하...」, 매일신보, 1941.6.8

57) 「日用必要嗜好品 커피, 紅茶, 等潛跡」, 동아일보, 1939.12.1.

58) 「伊太利서는 커피도制限」, 동아일보, 1940.7.3.

#### IV. 1930년대의 한계와 문화인식의 형성

3장과 4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다방과 카페의 표면적·내면적 공간성은 1930년대 문화의 특성을 함축하고 있다. 다방과 카페는 표면적으로 여가의 공간이자 사교, 소비의 공간으로 기능하며 탈일상 쾌감이나 사적 안도감, 만남에 따르는 즐거움, 소비를 통한 행복 등의 근대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이해되던 다방과 카페의 공간성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면적인 공간성은 다르게 드러났다. 여가의 공간으로서 다방과 카페는 규율화 되고 보편화 된 일상으로 인해 우울과 피로가 누적 된 곳이며, 또한 일상의 압박이 관계성을 약화시켜 공동체의 분열 징후가 포착되는 공간으로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문화소비는 기형적인 근대경험으로 인해 자본주의적 속물성을 드러내기도 하며 외부로부터 형성된 문화개념과 인식이 작용하여 무주체적이고 무자각적인 문화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 공간으로 드러났다.

표리가 다른 양상으로 드러난 것은 근대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면적인 근대는 풍요와 발전, 자유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상대적 빈곤을 야기하고 근대적 계층이라는 불평등한 관계를 형성시킨다는 등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다방과 카페의 내면적 공간성, 즉 일상이 주는 강박, 자본주의적 속물성, 인간관계의 피상성 등이 이에 해당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점들까지도 근대적 요소라고 말 할 수 있다면 많은 근대적 병리현상을 드러낸 1930년대는 근대가 무르익은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여전히 근대라고 말 할 수 있는 오늘날의 도시적 병리현상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 발견한 우울, 소외, 불안, 절망, 피로 등이 드러내는 스펙트럼은 1930년대가 결코 보편적인 근대시기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작품은 근대문화가 지닌 부박함과 경망스러움이 우울과 소외를 낳았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데 관여한 보이지 않는 규율과 권력 때문이라는 점도 작품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이를 ‘식민지적 현실’ 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조선의 근대 문화적 특성을 ‘식민지적 특수성’ 으로 파악한 기존연구들에 의해 설득력을 갖는다. 이런 측면에서 다방과 카페라는 공간이 근대적 기능을 하는 공간이자 혼란한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는 비근대적 공간이기도 했다.

이러한 요인에서인지 작품들은 문제에 대해서만 비판적으로 인식 할 뿐 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주지 않는다. 반면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답변이 있을 뿐이다. 한 작품이 일상이 주는 강박이나 자본주의적 속물성, 인간관계의 피상성 등의 문제를 모두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통적인 점은 근대문화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작품들은 이러한 점들이

인간간의 유대나 관계적 결속력이 약화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들은 타인과의 ‘인간간의 관계회복’에 가치를 둔다.

<피로>에서 ‘나’는 다방이나 버스 안, 한강에서 만난 사람들을 관찰만 할 뿐 민중들의 삶에 대해 고심하지 않는다. 모두 같은 식민지 공간 안에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관심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식은 개인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그런데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구보’는 백화점을 운영할 것으로 보이는 시골 신사가 가난한 노파와 되도록 거리를 가지려는 것을 보고 시골신사를 업신여겨 준다. 근대문명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는 타인의 존재가치를 격하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의식들이 인간관계를 파탄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그럴수록 ‘구보’는 극도의 생활난을 겪고 있는 “벗의 조카 아이들”에게 수박을 한 개씩 사서 돌려 보내며 거리의 사람들에게까지 연민과 안타까운 감정을 드러낸다. 그리고 ‘구보’는 “어쩌면 이제 명랑하여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구보’가 “생활을 가지겠다”고 말한 것 또한 가족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결심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작품은 타인과의 관계회복을 가치로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피로>의 한계는 이후에 발표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보완되었으며, 인간애가 묻어나는 이상적인 공동체 공간을 제시했던 <천변풍경>에서 관계성에 대한 가치부여가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태준의 <장마>에서는 ‘나’는 재력과 명예를 갖기 위해 타인을 처세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강군’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왜냐하면 ‘강군’은 근대문명에 잘 적응하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경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보’는 문명적 생활방식을 통해 맺은 관계들 즉, “조선중앙일보사”의 모든 사람들과 벗이라 여긴 “구보나 이상, 월파나 일석” 모두 ‘직업적이고 사무적’인 이유에서 만난 관계였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나’는 천증원에 들러 아내가 좋아하는 돼지족을 사고 “한도(漢圖)”에 들러 어릴 적 친구인 ‘학순’이 부탁한 ‘나’의 소설책을 부쳐준다. 결국 작품은 진정한 인간관계의 회복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상구락부>에서 청해, 천마, 백구는 운심의 광산 개발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보며 공상이 실현 불가능함을 인식하지만, ‘운심’의 ‘금광열’이 근대문명의 추구가 부정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결국 세 사람은 회복한 “평화로운 기색”은 일시적으로 얻은 평화에 불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작품에서 네 친구의 친밀한 관계는 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반면 1942년 작품인 이효석의 <일요일>에는 근대문화의 향유하는데서 오는 근원적인 허무함을 드러낸다. 그런데 ‘준보’는 집에 돌아와 “따뜻한 방바닥에 몸을 붙이고

어린것들과 동무하고 앉으니 평화로운 마음에 한줄기 고요한 빛이 솟기 시작” 함을 느낀다. 이는 문화 적 혜택에 의한 행복이 아닌 “어린것들” 로 표현된 타인과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행복에 진정한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날개> 또한 ‘나’ 와 ‘아내’ 의 기형적인 관계를 통해 근대의 부정성을 드러낸다. 이어 <지주회시>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자본에 의해 형성 될 수 있는 기형적인 인간관계를 드러낸다. 이렇게 이상이 관계성에 천착하는 것 또한 관계성의 중요함을 인식한데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작품은 진정한 근대성으로 ‘관계의 회복’ 을 제시한다. 이는 근대의 문제를 빗겨가는 대담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것은 근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한 본질적인 대답이 된다. 즉, 당시의 근대는 진정한 근대가 도래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회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근대문화의 이식과 정착, 유행의 과정이 주체적이지 못했듯이 1930년대 근대문화의 종언은 1937년의 파마금지법, 집회금지법 등의 단속으로 시작된다. 특히 논의의 대상이 된 다방과 카페는 조선총독부에 의해 카페나 빠의 외국어 명칭이 모두 일본식으로 개정<sup>59)</sup>되고, 전시총동원체제에 의해 카페나 바의 출입에 대한 제제가 심해지게 된다. 또한 1941년 태평양 전쟁으로 설탕, 커피 등의 수입이 막히게 되고 2차세계대전으로 다방은 거의 폐업상태에 들어가게 된다.<sup>60)</sup>

표면적으로 1930년대는 놀라움과 경의의 1910년대와 과도기의 1920년대와는 달리 근대가 무르익고 정착되었다고 여겨졌었다. 그러나 근대가 외부로부터 주어졌던 것처럼 다시 외부에 의해 거두어져 가게 된 시대적 상황은 근대문화에 대한 근원적인 공허함과 허무를 낳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주체성이 결여된 문화의 획득과 상실은 문화에 대한 질문과 고민 자체가 무의미해졌던 것이다.

이러한 파행적인 근대경험은 문화를 향유하는 자세와 문화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또한 당시 문화에 대한 대중의 창조성과 추동력이 미비했던 것도 주체성이 발휘 될 수 없었던 근대경험이 축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59) 1938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鍾路警察署를 통해 카페·빠·茶집의 外國語 名稱을 모두 日本式으로 개정하라” 는 지시가 내려졌다(「鍾路警察署에 의해 카페·빠·茶집의...」, 동아일보, 1938.9.10)

60) 「다방업 실태」, 조사월국, 1972.5, p.20.

## V. 결론

오늘날의 문화에 대한 인식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근대의 다양한 변화가 누적된 1930년대 경성의 문화를 연구하였다. 특히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근대문화의 실상을 유추하기 위해 작품 속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도 외래문화이자 대중문화이며, ‘도시문화의 총아’라 불렸던 다방과 카페를 통해 당시 문화상은 물론 작품이 공간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바를 알아보았다.

대상작품은 박태원 <피로>,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이상 <날개>, 이태준 <장마>, 이효석 <공상구락부>, <일요일>이 되었다. 표면적으로 다방과 카페는 크게 여가, 사교, 소비의 공간으로 형상화 되어 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공간성은 다르게 나타난다.

여가의 공간으로서 다방과 카페는 규율화 되고 보편화 된 일상으로 인해 우울과 피로가 누적된 곳이며, 또한 관계를 약화시켜 사교공간으로서의 기능도 다하지 못한 채 공동체의 분열 징후가 포착되는 공간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화소비는 자본주의적 속물성을 드러내기도 하며 외부로부터 형성된 문화개념과 인식이 작용하여 무주체적이고 무차각적인 문화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드러났다. 이는 근대가 지닌 부정성, 즉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로 일상의 무게가 삶을 짓누르게 된 것으로 본다. 또한 자본주의화로 인해 물신주의적 사고가 팽배해져 계층 간의 부조화를 낳거나 외부로부터 조직되고 강제된 욕망이 문화에 대한 무주체적이고 무차각적인 소비를 발생시켰다고 본다. 그리고 여기에는 식민지 현실로 인한 대량실업문제가 소외를 조장하였던 조선의 특수한 시대적 현실까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식민지적 특수성이나 근대적 보편성 중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칠 수 없는 것은 1930년대 근대 도시 경성이 식민지적 특성과 근대적 특성이 뒤섞인 문제적 공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1930년대만의 특별한 문화적 경관을 만들어 냈다.

일상의 강박과 상품화 된 문화의 부박함과 경망스러움은 문화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삶의 근원적 질문을 가로 막았다. 또한 식민지 현실이라는 강력한 통제적 상황은 문화를 창조하거나 추동하게 하기보다 단순한 모방에서 그치게 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30년대 말부터 행해진 문화적 제한들은 근대 상실의 경험과도 같았으며, 이는 문화보다 ‘인간간의 관계회복’이라는 더 본질적인 가치를 두게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점에서 작품의 공통 주제인 ‘관계회복의 염원’은 삶의 본질적인 주제와 직결됨과 동시에 이러한 1930년대의 한계적 현실에 대한 반응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당대의 문학작품은 문화의 향유가 가져다준다고 믿고 있는 쾌감 내지 편안함,

여유가 아니라 도리어 공허함을 드러냄으로써 역설적으로 ‘인간관계의 회복’이라는 이면적 주제를 지향한다고 본다. 이는 1930년대 근대문화가 지닌 내면적 특성, 즉 여가와 소비, 사교가 일회적이고 무주체적인 것처럼, 진정한 풍요로움과 만족감을 주지 못했음을 구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반식민주의 논리에만 기대거나 현상만을 지목해 온 기존의 논의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역시 식민지 현실이라는 강력한 통제적 상황으로 인해 문화를 창조하거나 추동하지 못하고 단순한 모방에서 그치고 말았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와 이어지는 점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거시적인 시대의 현상들을 작품은 공간 속에서 미시적으로 형상화되며 근대문화가 인간에게 갖는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다. 이는 근대문화에 대한 당대인들의 혼란과 고뇌를 유추 할 수 있게 해준다.

오늘날에도 다방과 카페는 여가의 공간이자 사교와 소비의 공간으로 애용되고 있음은 문화 공간 자체도 단절과 연속을 거쳐 전해졌다고 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대는 어떤 비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다방과 카페 문화가 삶 안에 파고들어 있다는 것이 당시와 다른 점이 될 것이다. 이는 다소 무리이긴 하지만 오늘날의 여가에 대한 강박이나 문화에 대한 욕망, 무자각적인 문화향유 패턴이나 문화에 대한 공허함과 허무 등의 현상들과 감정들은 1930년대의 근대 경험이 의식 속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추측만 가능 할 뿐 당시 도시사회의 복합적인 조건들을 배제하고 표피상의 연속성에만 주목하여 근대문화를 ‘현대문화의 원류’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자의적인 해석이 될 것임으로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가 근대에 있어 문제적 시대였음은 간과 할 수 없을 것이다.

1930년대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근대문화가 막 유입해오던 시기인 1910년대와 과도기였던 1920년대의 상황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의 근대문화의 유입과 정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일제문화의 연구를 위해 일본작품과의 비교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 참고문헌

### <작품>

- 이상, 한국문인협회 편, <날개>, 《韓國短篇文學大系 3》, 삼성출판사, 1971.  
박태원, <피로>, 《박태원 단편집-소설가 구보씨의 1일》, 깊은샘, 1989.  
-,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北으로 간 作家 選集 5》, 을유문화사, 1998.  
이태준, <장마>, 《이태준 문학전집 단편 Ⅱ》, 瑞音出版社, 1998.  
이효석, <日曜日>, 《李孝石 全集-마음에 남는 風景》, 대호출판사, 1959.  
-, <空想俱樂部>, 《李孝石 全集-마음에 남는 風景》, 대호출판사, 1959.

### <신문·잡지 자료>

#### - 잡지기사

- 안희남, 「作家日記, 紫煙과 讀書」, 『삼천리문학』 제2집, 1938.4.1.  
이헌구, 「「보헤미앙」의 哀愁의 港口, 一茶房 보헤미앙의 手記」, 『삼천리』 제10권 제5호, 1938.5.1.  
구왕삼, 「樂壇雜觀」, 『삼천리』 제11권 제7호, 1939.6.1.  
정석태, 「洋行中 雜觀雜感」, 『별건곤』 제1호, 1926.11.1.  
김을한, 「世界各國 夜話集」, 『별건곤』 제30호, 1930.7.1.  
체대병원 어철, 「衛生講座, 人生과물 冷水를먹어라, 都會病과 冷水」, 『별건곤』 제49호, 1932.3.1.  
록안경, 「카페女給 언파레-드」, 『별건곤』 제57호, 1932.11.1.  
이선희, 「漫文, 茶黨女人」, 『별건곤』 제69호, 1934.1.1.  
박영희, 「茶街散步」, 『신동아』, 1934.9.  
「紅茶와 文化人」, 『조광』, 1938.2, p.331.  
현민, 「현대적 다방이란?」, 『조광』, 1938.6.  
안석영, 「韓國文壇三十年側面史」, 『조광』, 1939.6.  
제씨, 「우선 健康, 일꾼의 몸튼튼부터, 나의 健康法」, 『동광』 제29호, 1931.12.27.  
「女記者 群像」, 『개벽』 신간 제4호, 1935.3.1  
「茶房雜話」, 『개벽』, 1935.1.  
이봉구, 「한국 최초의 다방 - 카야큐에서 에리자까지」, 『세대』, 1964.4.  
「다방업 실태」, 『조사월국』, 1972.5, p.20.  
이규태, 「커피와 한국 근대사 속의 인물들」, 『coffee&coffee』, 동서식품주식회사, 2002.

## - 신문기사

### (동아일보)

「카피차끄리는법 - 카피의분량은얼마 - 用器와牛乳의 使用方法」, 동아일보, 1927.10.27.

「만히먹지아니하면 커피는무해하다 - 백五十잔부터는 해롭다」, 동아일보, 1932.4.28.

「카페經營網 北村에 進出-음식점수가 굉장히 늘어 昨年보다 三倍激增」, 동아일보, 1932.5.5.

「자기前고-히 한잔까지는조타」, 동아일보, 1936.5.12.

「鍾路警察署에 의해 카페·빠·茶집의...」, 동아일보, 1938.9.10

「커피-代用品 “오크라” 는 무엇?」, 동아일보, 1939.5.25.

「카피와주름살 - 너머마시면해로워요」, 동아일보, 1939.8.29.

「日用必要嗜好品 커피, 紅茶, 等潛跡」, 동아일보, 1939.12.1.

「“커피” 한잔四十錢 - 本町署에서暴利茶房을團束」, 동아일보, 1940.6.8.

「茶房의엘레지 - 커피求不得·假짜品出現」, 동아일보, 1940.6.8.

「伊太利서는 커피도制限」, 동아일보, 1940.7.3.

이태준, 「구인회 난해 기타」, 조선일보, 1935.8.1.

「이달에 콩으로 國產 커피를 제조하...」, 매일신보, 1941.6.8

김은신, 「호텔 커피숍(‘이것이 한국 최초’)」, 경향신문, 1996.12.21.

### <단행본>

강준만·오두진, 《고종 스타벅스에 가다》, 인물과 사상사, 2005.

김진송, 《서울에 판스홀을 許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난찌 먹으러 감시다- 백화점과 양식의 만남」, 《모던라이프 언파레드: 2,30년대 일상문화》, 민속원, 2008.

양리르페브르 저, 박정자 옮김, 《현대세계의 일상성》, 주류, 1995.

이재선, 《한국소설사》, 2000, 민음사.

장일구, 「소설 공간론, 그 전제와 지평」, 《공간의 시학》, 한국소설학회, 2001.

전경수, 《문화시대의 문화학》, 일지사, 2000.

조영복,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근대성과 일상성》, 다운샘, 1997.

채만식, 〈종로의 주민〉, 《채만식전집8》, 창작과비평사, 1989.

크리스토프 르페뷔르 저, 강주현 역, 《카페의 역사》, 효형출판, 200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 <학위·일반논문>

- 김병덕, 「현대소설에 나타난 다방의 심리지리」, 비평문학, 2009.
- 김정하, 「근대문화공간의 문학적 형상화- 이광수 소설에서의 온천 이미지를 중심으로」, 배달말 학회, 2008.
- 나은진, 「이상 소설에 나타난 여성성-양과 껍질 벗기기」, 여성문학연구 제6호, 2001.
- 노지승, 「1930년대 작가적 자기인식과 그 문학적 생산력에 관한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7집, 1999.
- 박숙영, 「근대문학과 카페」, 한국민족문화 25, 2005.
- 손유경, 「1930년대 茶房과 ‘文士’의 자의식」, 한국현대문학연구 12, 2005
- 안미영,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여급(女給) 고찰 - 이상의 여성관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호, 2000.
- 이경훈, 「‘미쓰코시」, 근대의 쇼윈도우-문학과 풍속 1」, 현대문학의 연구 제 15집, 2000.
- 이계옥,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이재봉, 「근대 사적 공간과 문학의 내면 공간」, 한국문학논총 제50집, 2008.
- 정현숙, 「1930년대 도시 공간과 박태원 소설」, 현대소설연구 31, 2005.
- 차선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연구」, 구보학보, 2007.